

한인뉴스

12

2012 VOL.198

haninnewsinni@gmail.com



PT. KYUNG HEUNG INDONESIA

인도네시아 최초 샌드위치 패널 생산업체

SANDWICH PANEL™ ROOF AND WALL

Me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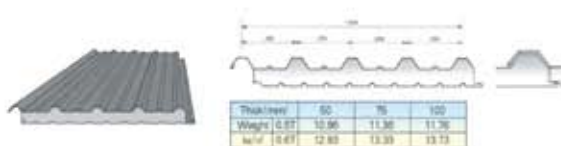
- High Efficiency insulation (no need A/C for housing)
- Protection of dampness, insulating effect, and water leakage.
- Long lifetime (approx 20 years)
- Simple erection and saving cost steel structure (CNP distance 1500mm)
- Clean factory



1. Type of Sandwich Panel™:

Roof : V-250 Typ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Thickness	50	75	100
Weight	0.87	10.96	11.36
kg/m ²	0.87	12.83	13.33

Wall : KHW-3 Typ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Non flammable 2nd class registered building material)



Thickness	50	75	100	150
Weight	0.57	9.99	10.79	10.59
kg/m ²	0.57	11.56	11.76	12.16

Tile Roof : Genteng-Type

- EPS Panel
- Safe Board Panel (EPS + Graphite)

Length for the above material:

- Customer request up to 12Mts
- More than 12Mts to be discussed



Arch Type Roof : ATR-250

- Radius depend upon customers requirement.

Product & Fabrication: Doors, Swing Door, Hanger Door, Louver Etc



2. PERFORMANCE:

Korean Customer (2001):



Local Customer (2003):



Foreign Customer (2008):



Head Office:

Wisma Slipi 4th floor suite #F403
Jl. S Parman Kav.12 Jakarta Barat
Telp: (021) 5307244 Fax: (021) 5307256
CP: Mr. Haryanto Choi HP: +62811-189408
E-mail : choiwoobum@yahoo.co.kr
www.trustedcompany.com

Factory:

Jl. Raya Serang KM.12 kampung Gebang
Cikupa Tangerang
Telp: (021) 59402532 Fax: (021) 59402496
CP: Mrs. Lusi HP: +62815-10598501
E-mail : sndpnl@yahoo.com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개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We Know Indonesia Better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즈 코리아 Garuda Orient Holidays Korea



GA 왕복항공권 (인천-자카르타)

	유효기간	CLS	비수기 10/1 ~ 11/30 2/27 ~ 3/31	평수기 12/1 ~ 12/21 2/1 ~ 2/26	성수기 12/22 ~ 1/31
이코노미	14일	B	660,000	760,000	840,000
	21일	Q	700,000	800,000	860,000
	1개월	N	720,000	840,000	880,000
	2개월	N	878,000	889,000	899,000
	3개월	K	899,000	910,000	921,000
	4개월	L	941,000	993,000	1,024,000
	6개월	M	1,066,000	1,150,000	1,255,000
비즈니스	1년	Y	1,494,000	1,494,000	1,494,000
	3개월	D	1,800,000	1,900,000	2,000,000
	6개월	D	2,100,000	2,200,000	2,300,000
	1년	C	2,496,400	2,496,400	2,496,400

! 할인 안내

- 학생할인: Y/M/L/K/N 에 한하여 20% 할인
* 단, 재학생증서 첨부 필수
- 경로우대할인: Y/M/L/K/N 에 한하여 20% 할인
* 단, 만 60세 이상 여권첨부 필수
- 이코노미 조기발권할인: 5% 할인
* 단, 출발 45일 전 발권 시 적용
- 비즈니스조기발권할인: 5% 할인
* 단, 출발 45일 전 발권 시 적용, D CLS only

Dream Holidays 자카르타 에어텔

Hotel	Room Type	Low 10.01-11.30 02.27-03.31	Shoulder 12.01-12.21 02.01-02.26	High 12.22-01.31	1박2주
항공 * 호텔 2박					
The Batavia Hotel ★★★★	Superior	629,000	729,000	809,000	34,000
Aston Marina ★★★★	1 B/R Regular	669,000	769,000	849,000	54,000
The Sultan ★★★★	Deluxe	719,000	819,000	899,000	79,000
Crowne Plaza ★★★★	Deluxe	729,000	829,000	909,000	83,000
Gran Melia ★★★★	Deluxe	789,000	889,000	969,000	111,000
Surcharge USD 30 (Check-in: Mon, Tue, Wed, Thu)					
Mulia Senayan ★★★★	Splendor	819,000	919,000	999,000	127,000

Dream Holidays (자카르타 스타) 발리 에어텔

Hotel	Room Type	Low 10.01-11.30 02.27-03.31	Shoulder 12.01-12.21 02.01-02.26	High 12.22-01.31	1박2주
항공 * 호텔 2박					
Lavender Luxury Resort ★★★★ Kuta	Superior	669,000	749,000	839,000	31,000
Surcharge USD 10/Room/Night * 03.01 - 03.31					
The 101 ★★★★ Legian	Standard	709,000	789,000	879,000	51,000
The Patra Jasa ★★★★ Kuta	Deluxe	779,000	859,000	949,000	86,000
Courtyard Marriott ★★★★ Nusa Dua	Deluxe Garden	779,000	859,000	949,000	86,000
Surcharge USD 20/Room/Night * 02.09 - 02.16					
Melia Bali ★★★★ Nusa Dua	Deluxe	819,000	899,000	969,000	104,000
Pullman Legian Nirwana ★★★★ Legian	Deluxe	829,000	919,000	1,009,000	112,000
Intercontinental ★★★★ Jimbaran	Resort Classic	889,000	969,000	1,059,000	137,000
Conrad Bali ★★★★ Nusa Dua	Singaraja	929,000	1,009,000	1,099,000	159,000
Surcharge USD 10/Room/Night * 02.09 - 02.16					
Conrad Bali ★★★★ Nusa Dua	Deluxe Garden	909,000	989,000	1,079,000	147,000
Surcharge USD 10/Room/Night * 02.09 - 02.16					
Conrad Bali ★★★★ Nusa Dua	Deluxe Resort	929,000	1,009,000	1,099,000	161,000

! 에어텔 공통사항

항공 항공권 + 호텔 2박 및 조식이 포함된 에어텔 요금입니다. < 자카르타 에어텔: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자카르타 스타) 발리 에어텔: 인천-자카르타-발리-인천 왕복 항공권 > 추가 숙박은 1박 추가 요금 확인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 및 인천공항세, 입국비자, 현지 공항세는 불포함입니다. / 2인 1실 기준 1인 요금이며, 1인 1실, 아동 등 기타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V Class 7일 항공권 기준이며, 항공권 연장 추가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지역권, 호텔간 결함이 가능하며, 별도 문의 바랍니다.

PRIME



! 예약 및 문의

PT. Prime Tour Jakarta 1F. Wisma Korindo,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T. +62 (0)21-7917-0316 F. +62 (0)21-7917-0317
GOH Korea Seoul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층 T. +62 (0)2-3789-0831-4 F. +62 (0)2-3789-0835

* Garuda Orient Holidays Korea(GOH Korea)는 Garuda 인도네시아 항공의 여행브랜드입니다.

관광지에서 귀중품 도난 피해 주의

최근 자카르타 따만미니인도네시아를 관광하던 우리 동포들이 차량에 두고 내린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호텔체크아웃하고 임차차량을 이용, 따만미니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소지품을 차량에 두고 내린 다음 관광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 안에 있던 여권,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 귀중품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도난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해야 하고 비록 공관에서 여권을 신속하게 재발급해 드려도 주재국 이민국에서 입국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 귀국항공편 좌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에 귀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동포여러분은 관광지에서 귀중품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휴대하거나 또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여 소지품을 지키도록 조치한 다음 관광을 시작하시는 것이 최선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이희성 영사, Tel : 021-2992-2500, Fax : 021-2992-313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 취소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인도네시아의 현안인 최저임금제와 아웃소싱 철폐요구에 따른 우리 동포기업들의 경영환경과 투자환경의 급격한 악화 등 경제여건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어 동포기업들이 사활의 기로에서 폐업, 이전, 근로자 해고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난국의 배경에서 이미 계획되었던 한인사회내의 연말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자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국정서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의 우려와 염려 섞인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급기야는 행사 취소 결정을 내리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헤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찬조, 격려에 감사드리며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기회에 많은 동포들이 축제의 즐거움 속에 만남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알찬 준비를 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을 본 한인회는 약속드립니다.

이미 구입한 티켓은 구매한 장소에서 즉시 환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오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인도네시아의 첫 향기 ‘쯡개 Cengkeh’

●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인도네시아에 처음 입국하시는 분들이나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은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구나 매캐하고 독하면서도 한편으론 치과병원 소독약 비슷한 냄새가 나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담배냄새를 기억하실 겁니다. 필자의 뇌리에도 두리안 냄새와 더불어 인도네시아를 자동으로 연상케 하는 냄새입니다. 이 특이한 냄새는 담배 안에 들어있는 정향(Clove), 현지어로 ‘쯡개(Cengkeh)’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의 독특한 향(香) 때문입니다.

정 향은 열대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도금양과(Myrtaceae)에 속하는 상록교목입니다. 이 나무는 10-20m까지 자라고 잎은 마주나며 잎의 모양은 계란형이나 타원형입니다. 꽃봉오리를 정향이라 하며 특히 향이 좋습니다. 열매 말린 것은 모정향(mother-of-clove)이라고 합니다. 정향의 공식 학명은 *Syzygium aromaticum* (L.) Merr. & Perr.이며 과거에는 *Caryophyllus aromaticus* L., *Eugenia aromatica* (L.) Baill. 등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정향은 브라질, 인도, 필리핀, 자마이카, 탄자니아와 같은 열대국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지만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의 말루꾸 군도(Maluku Islands)입니다.

꽃봉오리는 꽃이 피기 직전에 손으로 직접 따거나 대나무 가지로 내리쳐서 따는데 처음엔 녹색이거나 약간 분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햇볕에 또는 불을 지펴서 말리면 검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말린 꽃봉오리의 모양이 못(Nail)과 닮았다고 해서 정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영명인 클로브(Clove) 역시 불어의 클루(Clou, 못)에서 유래했습니다. 꽃을 딸 땐 주의를 요하는데, 일단 봉오리가 벌어지면 향신료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향은 고대부터 대표적인 묘약의 하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로마, 중국에서 음식에 향미를 더하거나, 입 냄새를 없애고, 방향(芳香)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후한의 ‘한관의’라는 책에 정향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궁중의 관리들이 황제를 알현할 때 입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이것을 입에 품었으며, 이것을 ‘계설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향은 중세 이슬람 문화권의 상인들을 통해서 지중해 전 지역에 알려진 뒤 유럽에는 8세기경에 도입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온 유럽인들에게 ‘향료 섬(The Spice Islands)’으로 알려졌던 말루꾸 군도에서 생산된 정향은 실로 훌륭한 향취와 음식의 맛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구나 정향은 향취가 좋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와 살균력이 굉장히 좋아 탁월한 약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유럽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5세기 초반부터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막대한 이권이 걸린 향료 무역 독점을 위한 서구열강들의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향의 말린 꽃봉오리는 그대로 또는 가루 형태로 사용되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특징이라 중국요리에서는 오향장육에, 서양에서는 디저트나



음료, 고기요리나 피클 소스 만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향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essential oil)의 주성분은 ‘유제놀(eugenol)’입니다. 정향의 독특한 향과 효능은 이 성분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마취제, 방향제, 항생제, 살균제, 구충제, 모기퇴취제, 향류마티스제, 구풍제(驅風劑) 등의 사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치과에서 좋은 충치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미 경렌즈 세척제, 치약, 구강청정제, 비누, 향수, 머릿기름의 첨가제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통 칼인 ‘크리스(Keris)’의 채색과 ‘일본 도(刀)’의 녹방지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향의 원산지인 인도네시아는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정향을 소비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담배와 정향가루를 혼합해 ‘크레텍(Kretek)’이라는 정향담배를 최초로 생산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나므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국내생산량과 수입물량을 합하여 연간 3만톤 정도의 정향이 소비되는데 그 중 85퍼센트가 담배 제조에 쓰인다고합니다. 약 7만 명의 노동자가



이것의 생산에 종사할 정도로 크레텍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크레텍 담배로 소비되는 정향의 양은 전 세계 생산량의 50%라고 합니다.

18세기경 열강의 다툼 속에 해외로 유출된 정향은 열대 각국에서 재배되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Zanzibar)섬은 오늘날 정향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정향 원산지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전락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위로하듯 인도네시아인들은 세계 정향의 절반을 담배연기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동포안내문.....	5
재외선거 관련 안내	7
인도네시아의 약용식물/쥬깨<백진협>.....	6
차 한 잔 마시며<김문환> /제34번째 주.....	10
인터뷰>롯데마트인도네시아 윤주경 법인장.....	14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15
12월 특집> Selamat Tinggal 2012.....	16
연재기고<신성철> 연말 핫이슈.....	22
풍경과 사람<엄종한>.....	27



표지설명 ▶▶▶

또 한 해가 가고 읊니다.
용띠해에 좋은 일 많이 이루셨는지요.
더욱 행복한 2013년 맞이하십시오.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린지 벌써 2년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한인뉴스를 만들면서 행복했습니다. 더 오래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을 찾으려 합니다. 그때에도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모두모두 도전하고 성취하는 2013년 만들어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박 정 자



이모저모, 한인사회.....28

- 이명박 대통령 제5차 발리민주주의 포럼 참석
- 한-아세안센터 주관 투자조사단 인니 방문
- 22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
- 노동문제 대책회의 & 아웃소싱법안 입법 예고
- 아시아 진출 한국기업 CEO 및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 T-50 공군조종사 훈련과 특수비행용으로 활용 예정
- 한-인니 친환경차 협력 MOU 체결
- INDO DEFENCE 2012 엑스포 및 포럼 개최
- 한인회 북한의 연평도 공격 2주기 맞아 성명서 발표
-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 2012 청년회의 개최
- 땅그랑반뜬한인회 새 회장 선임
- 재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 총회
-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해단식
- 재인니한인 차세대 포럼 및 활성화 대회 개최
- 하나-외환은행 2013년 경제전망세미나
- 코린도장학재단 인니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지원
-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우수대학생 장학금 수여
- 포토뉴스
- 해리티지 탐방 안내
- 제13회 한인미술협회전
- KOWIN 생생토크
- 라뮤즈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 제6회 JKCC 정기연주회
- 제2기 MIT 사역자 훈련학교
- 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강좌
- 재인니한인색소폰동화회 송년콘서트
- 폴랜드코리아, 제1 KOMIPO School 준공
- S4, 한인니합작 아이돌 그룹 활동 본격화
- 2PM, 2012 케이팝콘서트 대미를 장식한다
- 직스 소식
- 유엔데이를 맞이한 JIS<박용희 학생기자>

Jalan-jalan Jakarta <사공경>

/성마리아대성당.....54

독자기고 /행복했던 3년<이태복>.....58

속담으로 익히는 바하사인도네시아 <박정자>

/Di mana ada kemauan, di situ ada jalan.....60

행복에세이 <서미숙>

/11월의 단상.....62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신아웃소싱법.....64

독자기고

/산호천국 WAKATOBI가는길<이재원>.....68

한인회 임원찬조금.....70

문화회관 이용안내.....72

생활정보.....73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34번째 주

김 문 환 / 논설위원

인도네시아는 현재 34개 주, 402개 군, 93개 시로 구성된 총 529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보유하는 대국으로 팽창하였지만 독립선언 직후만 하더라도 8개 주에 지나지 않았다. 독립선언이 낭독된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PPKI)가 제일 먼저 처리한 일은, 수카르노가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헌법분과소위원회가 제안한 헌법(UUD45)을 통과시켰으며, 오토(Otto) 위원이 제청한 수카르노, 핫타를 각각 정,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 다음 날인 8월 19일엔 마라톤회의를 열어 12부서 장관을 임명하고 수마트라(Sumatra), 동부자와(Jawa Timur), 중부자와(Jawa Tengah), 서부자와(Jawa Barat), 보르네오(Borneo), 술라웨시(Sulawesi), 순다 켄잘(Sunda Kecil), 그리고 말루쿠(Maluku)의 8개 주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22일엔 향토방위 의용군(PETA), 병보(Heiho), 민병대(Laskar)를 규합하여 오늘날 국군(TNI)의 전신이 된 국민방위대(BKR)가 창설되었다.

우리들의 학창시절 지리 교과서에 나오던,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섬이라는 ‘보르네오’의 그 보르네오 주는 탄생한지 일년 후인 1950년 8월 14일자로 칼리만탄(Kalimantan)으로 개명되었으며, 그로부터 7년 후인 1957년엔 이 거대한 지역이 동부, 서부, 남부로, 1958년엔 중부까지 추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윤곽을 잡았다. 같은 시점에 열도 서부에 위치한 또 하나의 거대한 섬에선 중부 수마트라(Sumatra Tengah) 주로 명명되었던 행정구역이 리아우(Riau), 잠비(Jambi), 서부 수마트라(Sumatra Barat) 주로 분리되었으며, 동부제도를 망라하던 순다 켄잘(Sunda Kecil) 주는 오늘날 관왕의 메카이며 힌두교도들의 거주지인 발리(Bali)주, 그리고 동부 누사뎡가라(NTT)주, 서부 누사뎡가라(NTB)주로 세분화 되었다.

1959년 5월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최서부 지역인 아체가 특별지구(DI Aceh)로 지정되었다. 한편, 창과 활을 든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네덜란드 식민당국이 ‘네덜란드령 뉴기니(Nugini Belanda)’로 부르던 동쪽 끝 지역은 1962년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무력합병을 마치자 1969년부터 서부 이리안(Irian Barat)으로 명칭을 바꿨으나, 1974년 미국의 다국적 광업사인 프리포트사의 개업행사에 참석한 수하르토 대통령이 이와 때를 맞춰 우리 귀에 친숙한 ‘이리안 자야(Irian Jaya)’ 주로 고쳐부르게 되었다. 구스 두르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들어선 2002년에 서구 탐험가들에 의해 최초로 명명된 이름이었던 파푸아(Papua)를 다시 찾았다가, 곧 이어 서부 파푸아(Papua Barat)주와 동부지역을 관장하는 파푸아 주로 분리되어 있다. 서양인들이 섬의 모양새를 보고 ‘난초꽃’으로 비유하던 셀레베스(Celebes)섬도 이름을 바꿔 섬 전체가 한 개뿐인 술라웨시 주로 출발하였으나, 1960년 9월에 북부와 남부로 분리되었다.



독립투사 수카르노의 오랜 유배지인 수마트라 서부해안의 벵골루(Bengkulu)는 1967년 8월에 주로 승격되었으며, 역시 무력으로 병합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동띠모르는 1976년 7월17일 평정되어 제27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대의 전 지역과 동띠모르까지 포함하여 명실공히 인도네시아 전 열도가 통합되기에 이른다. 세계에서 인구밀집지역으로 항상 상위 순위에 드는 자와 섬 내에 유독 서부자와에 인구가 집중되어 2000년도에 인구 1천만의 반덴주를 떼어내고도 서부자와 주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4천6백만 명에 달한다. 35번째 주가 탄생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월 25일 국회 본회의는 34번째 주인 ‘북부 칼리만탄 주(Propinsi Kalimantan Utara)’ 안을 통과시켰다. 칼리만탄 동북부 지역인 불롱안(Bulungan), 누누칸(Nunukan), 말리나우(Malinau), 따나 띠둥(Tana Tidung), 따라칸(Tarakan)으로 구성된 신생 주가 탄생한 것이다. 이 지역은 오일가스, 광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은 이 구역이 주로 승격된 배경은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국경문제로 귀착된다. 오지인 까닭에 독립 이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자, 이곳 주민들은 접경지역을 넘어 부유한 말레이시아 사라와크(Sarawak) 지역에서 취업을 하거나, 의료혜택 등의 편의를 받아 왔다고 한다. 국권수호의 차원에서 자국민을 지켜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절박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이 확정되자마자 그 동안 중국이 공들여 온 아세안(ASEAN) 국가의 순방길에 나섰다. 이들 나라 중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하게 되는 미얀마도 포함되었다. 이 지역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인구대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수, 또는 연방국의 수가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고수해 오던 50개 연방 주에서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를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편협한 영토를 늘리기 위해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침략을 시도하다 결국 낭패를 보았지만, 100년 전부터 이주사업 정책을 펴온 결과, 남미, 하와이 같은 지역은 일본계 대통령과 주지사를 배출할 정도로 경제적 영역을 넓여 왔다. 골드만 삭스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로부터 10년 후인 2040년의 한반도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GDP)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자원과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선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금은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경쟁국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깨를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가정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김문환 논설위원의 <차 한 잔 마시며> 칼럼은 이번 호(30회)로 마감합니다. 한국과 인니를 연결하는 유익한 시사칼럼으로 한인뉴스독자들의 상식을 풍부하게 해주셨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롯데마트인도네시아

윤 주 경 법인장

롯데마트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2018년 아시아 1등 유통기업의 비전을 세워두고 있다. 유통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로 이어지며 유통업뿐만 아니라 연관 제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유통업체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로서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달에 만난 윤주경 롯데마트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아시아 1등 유통기업이 되는 데에 인도네시아 롯데마트도 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 내에서 ‘No.1 Retailer’가 되는 것입니다”라며 글로벌 CEO로서의 신념이 확고했다.

○ 롯데마트하면 워낙 유명하고 소비자와 직결되기도 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지만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해주십시오.

1998년 한국에서 강변점을 오픈하면서 롯데마트 할인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롯데백화점의 작은 하나의 팀조직에 불과했습니다. 2003년에 롯데백화점과 독립경영체제가 되면서부터 롯데마트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 나갑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국내에만 1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중국에 100개, 베트남에 3개, 인도네시아에 30개 등 GLOBAL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네덜란드 유통사인 MAKRO를 2008년에 M&A(기업인수합병)를 통해서 진출했습니다. 당시 MAKRO는 도매점포 19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롯데마트가 인수한 이후 대대적인 매장 리뉴얼 및 상품혁신,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80%의 매출과 이익 신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010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첫 소매점포인 간다리아점을 오픈했습니다. 간다리아점은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토종할인점의 유통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접목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롯데마트는 도매 22개 점포, 소매 8개 점포, 총 30개 점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로부터도 롯데마트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매장도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은 합리적이다라는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롯데마트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 1등 유통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VISION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롯데마트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을 장기적으로 진단하신다면.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D OCEAN이지요. 또한, 국내는 재래시장 등과의 마찰로 인해 각종 정부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점포 확장이 녹록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MARKET은 아직까지 그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6%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직접 투자(FDI)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산층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는 중산층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소득수준이 올라 갈수록 소비자들은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현대화된 매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 현재 인도네시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장기 PLAN을 갖고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2018년 VISION처럼, ‘아시아 1등 유통기업’ 이 되는 데에 인도네시아롯데마트도 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 내에서 ‘No.1 Retailer’ 가 되는 것입니다.

◎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계 또는 현지 대형마트들과 경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유통시장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할인점 간의 경쟁도 있습니다만, 슈퍼나 미니마켓의 급속한 성장도 큰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 인도마켓과 같은 미니마켓이 1만개 이상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전략이지요. 그래서 할인점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친절한 고객서비스 전략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 이와 같은 유통시장의 경쟁은 저희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 좋은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가 여러 경쟁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인도네시아 유통시장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촉매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임금인상과 관세규정 등 인니정부의 자국보호책도 많은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최근 인니정부의 자국 산업보호정책으로 인해 10월부터 과일, 채소 등 원예농산물에 대한 수입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소고기는 매년 수입 쿼터를 축소해 양질의 수입산 소고기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통업체들이 상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롯데마트는 수입 농축산품을 대신할 대체상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 농가와 롯데마트 간에 전용농장 계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지요. 또, 유명 산지와 직거래 계약을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도 안정적으로 소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자카르타의 경우 전년대비 44%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도 합니다. 유통업체는 봉제 제조업보다는 임금 인상 영향을 적게 받지만 경영에 부담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할인점의 70%에 해당되는 인력이 최저 임금에 해당합니다. 향후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롯데마트가 인니사회를 위해 벌이고 있는 CSR활동을 잠깐 소개해주십시오.

현대 경영에 있어서 CSR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경영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후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CSR)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친화를 위한 CSR활동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9월, 뼈당지역에 7.9도의 강진

이 있었습니다. 1,4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큰 재난이었습니다. 롯데마트는 한 마을 전체를 재건하기로 하고 25채의 새로운 집을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롯데마트 마을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CSR활동입니다. 각 점포마다 사랑의 봉사동호회가 결성되었고, 점포 인근에 있는 고아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식사도 함께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고아원 어린이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는 장학사업입니다. 롯데장학재단과 연계해서 4개 대학에 22명의 우수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대학교, 보고르 농대, 반둥 공대 등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도서관 리노베이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Rumah Zakat 과 연계한 다양하고 SOFT한 CSR 활동입니다. 각종 의료 지원사업, 깨끗한 물 제공사업, 불우 어린이 지원 사업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협력업체와 Co-CSR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유니레버와 연계해서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유니레버의 매출의 일부를 기부해서 낙후지역의 공중화장실 시설개보수를 진행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롯데마트는 CSR활동은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 내년은 한-인니 수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관련된 기념행사나 이벤트 계획이 있으신지요.

한-인니 수교 40주년을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롯데마트도 한국의 대표 인니 진출 기업으로서 다양한 축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특성을 살려 ‘KOREA FAIR’ 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AT센터 및 중기청과 연계해서 한국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K-POP과 같은 즐거운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유통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어려운 때 법인장님을 이끌어주는 마음의 글귀가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제가 학창 시절에 간직했던 좌우명은 “나무를 향해 쏘는 화살보다 하늘을 향해 쏘는 화살이 더 높이 올라간다” 였습니다. 목표를 크게 잡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나이도 들고 어느덧 반백년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많습니다. 역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자!”, “남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는 오투기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좌우명은 약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고 마음의 스승이 되자” 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특히 편한 쪽에는 쉽게 친해집니다. 이런 갈대와 같은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2012년이 어느덧 저물고 2013년을 맞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고객들에게 그리고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현지화 경영이었습니다. 다소 교민들에게는 “한국의 롯데마트가 왜 이래?” 라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귀기울여서 교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도 개선하는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엔 더욱 더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1. 10. 14~ ‘13. 1. 18.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2. 7. 22~ ‘12. 10. 20.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150일부터 6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10. 31~ 11. 9.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0~ 11. 14.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11. 15~ 11. 18.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11. 19.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11. 25~ 11. 26.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법§218의14④ 규§136의13
11. 29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12. 5~ 12. 10.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12. 19.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법§155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176 규§95의2

Selamat Tinggal 2012 Selamat Datang 2013

해마다 연말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 '다사다난' 이라는 말인 듯합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떠오르는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무척 바쁘고 안타깝게 지내셨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이 많은 한인동포 사회에서 노사문제라는 산처럼 무거운 난제들을 떠안고 와야 했던 힘든 한 해였으니까요. 다행히 대사관과 한인회, 관계 기관과 단체들의 불철주야 노력 끝에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모두들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용의 해>가 저물어갑니다. 용의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생각나는 두 가지 상반된 말이 있습니다. '화룡정점' 과 '용두사미' 어떠세요. 이쯤에서 환하게 두 눈을 밝혀둔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도 대적할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인뉴스 모든 독자님들 '화룡정점' 으로 2012년 멋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부터 11월호까지, 과월호를 다시 펼쳐보니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인니 국가 간 협력 사업도 한층 긴밀해졌고 한인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재인니한인사회가 따뜻하고 친밀했습니다. 행복한 새해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1월



2012 신년식 대사관저에서 개최



이날 훈장과 표창장 전수는 지난 '제5회 세계한인의 날' 한국정부에서 선정한 동포사회 리더로써 국격을 높인 유공자 포상을 대사관에서 전달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동포사회에서는 한-인니 교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모범적 경영인 송창근 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민주평통서남아지회 현정규 고문이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2012. 1. 2. 새해를 시작하면서, 김영선 대사는 대사관 직원과 동포단체 주요 간부 및 지상사 대표 등 80여 명을 대사관저로 초청하여 2012년 신년회를 개최하고,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장에게 국민훈장석류장을, 민주평통서남아지회 현정규 고문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전수했다.

신기엽, 조규철 한인회수석부회장, 옥타월드 김우재 이사장, 김현기 한국문화원장, 김두련 미원법인장 등 기업체 대표, 선종복 직스 교장 등 각계 인사들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요지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자카르타한국포럼 개최



2월



1월 31일, 그랜드하이얏트호텔에서 자카르타한국포럼 JKT(Jakarta Korea Forum)이 개최되었다. 이번 경제포럼은 한-인도네시아 경제관계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이 KOTRA, KOCHAM과 우리 기업, 각종 협의회, 공기업들 간에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경제, 통상 이슈를 협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들도 현지 사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법적인 대응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대사관과 KOCHAM, KOTRA 등 관련단체 협의체가 사전 협의를 거쳐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인회관 영사동 철거 시작



3월



오래된 건물에는 시대를 같이 한 역사가 있다. 이제 사진에서만 만나볼 수 있게 된 영사동 건물, 건축연대로 따지면 그리 오래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에 사는 재외동포들에게는 여러 감회가 교차하는 건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건물은 사라져도 역사는 남는다. 그리고 또 한나의, 사진 속의 역사가 아닌 실제의 역사로 더 오래, 더 높은 향기와 가치로 평가받는 새 건물이 순조롭게 공사를 마치고 준공되기를 기대한다. 영사동 신축건물은 대사관 준공과 시기를 맞추어 2013년 여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2월 15일, 영사동 건물은 1979년에 준공된 이후 1993년까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초등부)로 사용되어 한인사회의 꿈나무를 키워냈다. 그 후 한인회사무실과 한인사회를 위한 강좌 등 활동실로 사용되었으며, 영사관도 이 건물에서 업무를 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월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기뻐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4·11, 19대 총선>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오전 8시- 오후 5시) 6일 동안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실시됐다.

선거인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외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국내에서와 같은 기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사상 처음 실시되는 참정권 행사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을 찾은 동포들의 정성스러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5월



KOICA, 에너지·환경·천연물질 연구
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



5월 1일,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인도네시아 과학원(LIPI)과 협력하여 진행된 ‘에너지, 환경, 천연물질 연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팜과 천연고무 등 비식용자원을 활용하여 생물연료를 개발하는 시범공장을 건설하고, 공동 연수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대 및 인니정부의 기후 변화와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KOFA(회장 송창근) 제2기 회장단이 2012년 두 번째 정기모임을 지난 5. 26. 가딩라야CC Lotus Room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법령소개(5월인니상무부발령건)와 향후 임금정책설명회>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여느 때보다 긴장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외국기업에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법령과 제도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체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자리로 여느 때보다 중요한 모임이었다.



35개 회원사가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사관과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관계당국 등에 전달되어 협력을 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조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상부 장관령 27호에 대한 간담회 개최



6월 20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 주관으로 한국기업인들과 인도네시아통상부 총국장이 함께 자리하여 통상부 장관령 27호(수입자인증번호문제-API)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09년에 제정된 제조업체의 완제품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장관령 제39호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라 새 수입규정을 제정(2012. 5. 1.)하였으나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니 자국 내에서도 경영자총회, 상공회의소, 유통업협회 등 각계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8월



포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인도네시아경총(APINDO) 및 국제노동기구(ILO) 자카르타사무소(소장 Peter Van Rooij)와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개최했다.

7월 4일 상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기파 위르자완 통상장관 등 인도네시아 경제계

주요 관계자들과 최철규 외교통상부 심의관 외 인니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인니한국대사관 측은 인니에 진출한 한국대기업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CSR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활동은 미약하여 CSR MOU 서명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CSR활동은 인도네시아 내 약 1,500개의 우리 기업이 80만 명 정도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9월



북한인권, 난민문제,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논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국제회의와 더불어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외교부, ASEAN 관계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도네시아 주요 인권단체 등을 만나며 북한인권 상황을 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자카르타 방문을 시작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타깃으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공공외교친선대사 된 레발리나 에스 떼맛



10월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레발리나 에스 떼맛 (Revalina S. Temat)을 공공외교친선대사로 위촉하는 위촉장 전달식이 있었다. 한-인니 합작드라마 ‘사랑해, I Love You’에서 주연 여배우로 열연한 레발리나 친선대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역량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미디어, 언론, SNS 등에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9월 6일, 2012년 한국문화주간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문화진흥협회의가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공공외교친선대사는 외교통상부에서 임명하며 한국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명 외국인을 명예직 대사로 임명하는 제도로 인도네시아가 최초 사례이다.

재인니대한체육회, 전국체전에서 선전



11월



제93회 대구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이하 인니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를 따내며 해외동포경기에서 종합 6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초반부터 메달 획득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니선수단은 대회 막바지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꾸준

히 메달을 추가하는 기염을 토해 대회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1위 일본(금13 은5 동4), 2위 필리핀(금4 은7 동3), 3위 호주(금4 은1 동3), 4위 중국(금3 은7 동5), 5위 뉴질랜드(금3 은2 동4)에 이어 6위(금1 은5 동9)를 차지한 선수단은 메달 집계에서도 1위 일본 22개에 이어 메달 15개를 획득해 중국과 나란히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연말 핫이슈 : 임금상승, 아웃소싱 제언, 에너지보조금

◆ 최저임금급등, 대량해고와 인플레이션 우려

내년 자카르타 최저임금 Rp220만 확정

조꼬 위도도(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가 지난 11월 14일에 2013년 지역최저임금(UMP)을 지난해 150만 루피아보다 무려 44% 인상한 220만 루피아로 확정했고, 브카시는 140만 루피아에서 210만 루피아로 인상했으며, 땅그랑 지역도 노동계가 153만 루피아에서 236만 루피아로 54%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자카르타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섬유와 봉제, 전자 등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자카르타 정부부 데데 수젠다르 인력이주국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역 적정생계비, 물가상승률 및 인도네시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산업 부문별 최저임금 15~50% 인상 요구

자카르타 노동계가 주정부에 산업 부문별 지역 최저임금(UMSP, Upah Minimum Sektoral Provinsi)을 15~50%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2013 UMSP 인상률은 화학·에너지·광업 15~20%, 금속·전자·기계 24~25%, 자동차 25~30%, 보험·은행 50%, 섬유·봉제·피혁 20%, 관광 15%, 통신 40~50%, 소매유통 15% 등이다.

정부, 업계 타격 우려 임금유예 허용

정부는 임금급등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집약산업인 섬유, 봉제, 신발 등 분야의 기업들에게 새 최저임금 유예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새 최저임금을 면제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각의에서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해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임금 인상 유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노사합의 하에 유예신청서를 해당 지방정부에 제출하면 2주 안에 승인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을 관련부처가 준비하고 있다.

MS 히다얏 산업장관은 임금 인상 유예를 허용한 섬유·의류·신발 산업과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은 15%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총과 상공회의소(Kadin)는 회원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유예신청을 받고 있으며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 많이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도 유예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공회의소 자카르타 지부 사르만 시만조랑 지회장은 지난 11월 29일 “쥘린짱과 마룬다 지역 KBN에 있는 한국 봉제회사 60개의 대표들이 자카르타 시청을 방문, 내년 최저임금 유예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르만 지회장은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각 직장의 노동자와 회사측이 서명한 노사 합의서를 첨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집단 유예 반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폭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노동집약 산업과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를 허용하고 임금 15% 인상안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노동자협의회(Majelis Pekerja Buruh Indonesia, MPBI) 사이드 익크발 의장은 “주지사가 최종 결정한 자카르타 지역의 내년도 최저임금 220만 루피아 인상(섬유·봉제·신발 업계의) 집단적인 유예 움직임은 위법이며, 정부가 제안한 15% 인상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신청은 규정상 공인된 회계감사를 통해 2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만이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총이 집단적으로 유예신청을 할 경우 대규모 시위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노동자와 경제인단체 및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로 변질되는 상황이 7년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경총은 반뜰과 서부자바의 주지사가 확정한 최저임금을 행정법원에 제소했으나 노동자들의 과격시위에 무릎을 꿇고 소송을 취하했다.

“저임금시대 끝났다” 유도요노 대통령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자국이 더 이상 저임금 국가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노동의 저임금 시대는 끝났다”며 노동자 복지향상과 임금 인상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11월 29일 주지사, 군수, 경찰간부, 지역 군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노동 복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일치한다”며 “저임금과 불공정 시대는 끝났다. 노동자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금폭등하면우리기업 14만 감원 불가피

내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40~50% 인상된다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과 협력업체에서 14만여 명의 감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25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각 산업별 한인 기업 대표들을 소집해 자카르타 시내 모 식당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Kocham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상승 대책을 조사한 결과, 50만여 명을 고용하는 한국 봉제업체 및 협력업체

에서 10만 명 감원이 불가피하고 신발업체와 전자업계에서도 각각 3만 명과 1만 명 수준의 감원이 예상됐다.

송창근 Kocham 수석부회장은 다음날 최저임금 인상이 이대로 확정되면 한국 기업 및 협력업체에서만 14만 명 이상의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차뎀 바스리 투자조정청(BKPM) 청장과 M.S. 히다얏 산업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원 등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업체의 형편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한국봉제협회(Koga) 한 관계자는 “생산비 중 임금 비중이 매우 높은 봉제 하청업체에서는 내년 중 폐업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ocham은 급격한 임금 상승과 노동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 유예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Apindo, Kadin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최저임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대량 해고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고 이어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반대 소송 준비

경총은 일부 지역 기업인 단체들이 2013년 지역 최저임금 반대 소송을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유·봉제와 신발협회가 포함된 경총과 상공회의소(상의) 산하 바뎀, 반뜰, 동부칼리만탄, 자카르타 등 지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29일 소피아안 와난디 경총 회장이 말했다.

그는 “경총과 상의 등 경제인단체 지회의 소송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경총과 상의는 노동조와 노동집약산업의 기업들간 협상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하거나 노동단체의 과격 시위에 굴복해 대폭적인 최저임금을 수용하는 형국이다.

노동집약산업 수도권 이탈 전망

씨티연구소는 지난 11월 19일 지역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집약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이미 숙련공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신흥시장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지방정부가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씨티는 또한 지난 8월 기준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 6.13%를 기록했다고 강조하고, 대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가 올해 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는 노동비용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이 노동분쟁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중단기적으로 노동문제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인니 신발노동자 임금 중국보다 높다

인도네시아의 신발 제조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신발산업협회(Aprisind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신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금은 시간당 1.03달러(9,888루피아)로 중국의 0.91달러, 베트남 0.46달러, 캄보디아 0.29달러보다 높다.

하리얀또 Aprisindo 자문위원회 의장은 지난 11월 7일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의 근로자들보다 배나 많은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금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리얀또 의장은 “신발업의 마진은 5%이다. 신발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25%, 원부자재비 60% 일반경비 10%가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반띵주 땅그랑의 신발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179달러(171만 루피아)이다. 반면 중국 칭위안의 근로자들은 159달러, 베트남 호치민의 근로자들은 95달러를 받는다. 신발 제조업은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산업이다. 통상 한 개 신발 공장 투자 비용은 1억 달러이며 최소 1만 명의 일자리와 4만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있다.

하리얀또는 2005년에서 2006년에 투자자들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은 세계적 브랜드의 신발 산업이 회복된 것은 불과 2년 전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브랜드 스포츠화 제조 국가라고 말했다. 지난 2개월 여간 노동자 파업과 스위핑으로 생산활동이 간헐적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안똔 J 수웁 경총 대표는 “주문자가 완성품을 받아볼 때까지 단 5주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루만 작업을 못해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항공수송을 이용해야 하는 등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외국인력,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공략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주요 6개국은 지난 11월 20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탄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출범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의 FTA 파트너인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 간 FTA’로 RCEP가 체결되면 인구 34억 명의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EU를 능가하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됐다.

16개국 정상들은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RCEP 협상을 2013년 개시해 2015년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내 인력 시장을 외국인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파 위르야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RCEP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아세안은 인도와 중국의 인력 서비스 진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기파 장관은 “인도는 아세안이 서비스 분야를 폭 넓게 개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인력을 아세안에 투입하려고 한다”며 “문제는 국내 일자리를 잠식당할 우려가 될 정도로 그 한계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아세안시장 협정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외국노동자들에게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아웃소싱 규정 확정.. 산업계 반발

유예기간 6개월... 핵심 업무 아웃소싱 금지

인도네시아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이주부가 노동 아웃소싱 제한 규정을 확정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인력이주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서명한 아웃소싱에 관한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아웃소싱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은 6개월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핵심업무 아웃소싱을 금하는 한편 청소, 경비, 운전, 음식 공급업, 광업 지원업무 등 5개 분야만 아웃소싱을 허용한다.

이날 무하이민 장관은 “기업은 새 노동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 보수, 수당, 연가,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개월 안에 마무리 되는 작업 즉 건물 수리, 페인팅 및 카드 프린팅 등 작업에만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재 전자와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은 핵심업무까지 계약직 근로자를 외주형태로 고용하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새 규정에 대해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대(KSPI) 사ית 이끄발 의장과 변영노조연맹(KSBSI) 무도피르 의장 등은 인도네시아 노동환경의 개선이라고 환영했다.

소피안 와난디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은 무하이민 장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업체들이 새 규정을 자카르타 행정법원 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웃소싱 금지 법안에 반대한 기업들은 새 법안으로 인해 국내 실업이 악화되고 정규직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이에 노동집약산업체 중 다수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정부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전국적으로 주요 공단에서 시위와 파업을 벌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악띠가 소셜 리서치 센터와 전국노조연맹(SPNI), 프레드리 에버트 스티프팅 재단 등이 실시한 최신 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아웃소싱 방식으로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는 약 2천만 명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최대 경제교섭단체인 Apindo는 아웃소싱 노동자를 약 1,400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부분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반딧, 서부자바, 동부자바, 바탐 등 지역 산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력은 1억1,800만 명이고 이중 35%인 4,140만 명이 아웃소싱, 가사노동자와 개인운전기사 등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노동자다.

◆ 에너지보조금 축소, 재정건전성이나 민심이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보조금과 유류보조금으로 구성된 에너지보조금을 축소해야 하지만, 국내 유가인상과 인플레이션 및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내년엔 전기료 인상은 확정된 반면 유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인상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기료 내년 점진적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3년에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총 15%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인도네시아 재정·경제발전연구소(INDEF)’의 에니 스리 하르따띠 경제전문가는 지난 11월 11일에 “내년에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으로 수조 루피아가 인상된다고 해도,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경제성장률 목표 6.8%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과 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제조원가 상승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니 경제전문가는 “정부는 오는 2013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하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내년보조금석유가격단계적인상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예산에서 유류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보조금석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루디 루비안디니 광물에너지부 차관은 지난 10월 21일 내년에 분기마다 리터당 500루피아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디 차관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석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갑자기 기름값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을 한 번에 인상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류보조금의 단계적 인상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민반발로 유가인상 무산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3월 31일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 본회의 끝에, 지난 4월 1일부터 보조금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6천 루피아로 33% 인상하려던 계획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날 본회의 최종 결정사항은 2012년 국가예산에 가정한 인도네시아산 원유 가격(ICP)이 6개월 동안 15% 오르거나 내리면 보조금휘발유(프리미엄) 가격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제2 법안이 채택돼 당장은 보조금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게 됐다. 현재 국가예산에 가정한 ICP는 배럴당 105달러이다.

보조금휘발유 가격 조정법안이 결정되기까지 6개월가량 논쟁과 심의를 거쳤고, 최근 1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노동자와 대학생들의 과격·폭력 시위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이 인상됐지만 유가 인상으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유가인상 반대에 선봉에 섰다.

유가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던 지난 3월에는 신선식품을 필두로 거의 모든 품목이 10% 가량 인상돼, 유가 인상이 연기된 이후 다시 인하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전망이다.

유가인상에 관한 국회 최종 표결이 진행되던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50분께 국회의사당에서 유가인상반대 시위대가 도심고속도로를 점거해 이 지역 도로가 전면 마비됐다. 이어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며 과격시위를 벌이자, 시위진압 경찰이 이날 오후 7시부터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강제해산작전에 돌입해 오후 9시께 시위대를 슬리퍼와 짜왕 방면으로 밀어내면서 해산시켰다.

남부술라웨시 주도 마까사르에서도 시위 대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십여명이 다치는 등 이날 전국적으로 대규모 과격시위가 벌어졌다.





...내 비밀은 이진데,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란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생똥퀴베리, 어린왕자 중에서>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이명박 대통령, 제5차 발리민주주의포럼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5차 발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과 함께 참가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일반토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제5차 포럼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 원칙 증진의 적절성(Relevance of advancing democratic principles at the global setting)」을 주제로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제평화와 안보, 경제발전과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인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언급하면서, 문화·민족·종교가 어느 지

역보다 다양한 아태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착실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인 인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동북아 과거사 특히 2차 대전 중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했다.

발리민주주의포럼은 아태지역 국가들 간 민주주의 모범 관행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가 창설한 고위급 지역 협력 포럼이다. 공동주재국 정상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외의 오피서버국가 정상, 각료급 인사, 고위 외교관 등이 참석하여 개방적 대화 형태로 진행된다.

한-아세안센터 주관 투자조사단 인도네시아 방문

한-아세안센터는 11. 17.(토)~21.(수)간 정해문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조사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하였다. 총 30여 명 규모로 가전제품, LED, 기계류 분야 기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투자조사단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과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로부터 최신 투자환경과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의 가전제품, LED, 기계류 분야의 산업현황을 파악하며,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현지 기업인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현지 관련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한-아세안센터 관계자는 “금번 투자조사단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문은 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우리 관심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투자 확대 및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과를 기대했다.

한국인의 자존심, 한글 22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자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10월 9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글날의 국가공휴일은 2013년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국가공휴일은 14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한글날은 정부수립 후 계속 국가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가공휴일은 2006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 등이 국가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등 계속 줄이는 추세였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6%가 한글날 공휴일 전환에 찬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글날을 국가공휴일로 바꾼 이유에는 ‘휴식, 여가, 관광 등의 활동으로 노동생산성 향상’(33.7%), ‘내수경기 활성화’(21.3%), ‘일자리 창출’(13.9%) 등의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직장인 대다수는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 찬성하며 공휴일이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휴일이나 황금연휴가 들어 있는 달은 업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90.9%)고 응답했고, ‘휴일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과 ‘리프레시 효과로 재충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법정공휴일이 되기를 바라는 달은 ‘어버이날’이 49.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식목일’(23.9%), ‘제헌절’(17.7%), ‘국군의 날’(6.8%)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선진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추가로 공휴일을 늘리는 것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그러나 한글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며 그 문화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빛나는 문화유산이기에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대표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정부의 기념행사 등을 통해 해마다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3일, 노동문제대책회의



노동문제 대책회의 & 인도네시아 아웃소싱 법안 입법 예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2013년 최저임금 인상 물과 노동문제로 우리 기업이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겪었던 악몽을 되풀이 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들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50%를 선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00만 루피아를 넘게 된다면 기업체들은 폐업 또는 야반도주 등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카르타 최저임금이 220만 루피아, Bekasi 지역이 200만 루피아로 결정되어 커다란 과장이 예상된다.

대사관과 상공회의소, 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한 13일 회의에서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대사관과 코참이 협력해 제출하고, 경총 등 교섭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대규모 시위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해고나 상품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해지고 악순환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주부는 아웃소싱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

다. 새 규정은 ‘아웃소싱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은 6개월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핵심 업무 아웃소싱 금지, 청소, 경비, 운전, 음식공급업, 광업 지원업무 등 5개 분야만 아웃소싱을 허용’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인력이주장관이 지난 15일 아웃소싱에 관한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했고, 법무인권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아웃소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고용 증가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1,400만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대규모 노사분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향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핵심공정과 비핵심공정에 대한 정확한 업무 플로우 차트(flow chart)를 만들어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할 경우 아웃소싱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준 상태여서 공무원들의 관행이 작용할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아시아 진출 한국기업 CEO 및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현지진출 기업의 CEO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국기업 CEO 및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지식경제부 주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진출 CEO 및 경영진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아이디어 창출 기법, 경영자를 위한 현장품질 전략, 인니 진출 한국 CEO를 위한 작은 팁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전략적 사고기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중간관리자의 조직충성도 강화를 위한 효과적 조직관리 기법, 경영자가 알아야 할 현장품질 전략, 고객만족 경영 등을 주제로 한국기업의 현지인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로 알차게 이어졌다.

조직충성도 강화를 위한 효과적 조직관리 기법에 관하여 강의한 이상진 교수는 “성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낼지는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의 문화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라는 GE의 잭 웰치 전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는 관리자의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수진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직관리 분야, 품질관리분야 등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원 포인트 레슨’ (one-point lesson)을 통해 체험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창의적 인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생존전략이다. 창의적 과업에 도전할 때 조직 내 창의적인 인재가 많아질 것이며, 지속적인 인재 계발에 대한 투자는 CEO 및 경영진의 몫”이라고 도전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창근 상공회 회장은 “역량이란 능력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 CEO는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이다”며 문제가 생기면 도전하여 극복해나가는 CEO가 되자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설립 이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융자, 컨설팅, 해외마케팅, 연수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T-50 공군조종사 훈련과 특수비행용으로 활용 예정



내년 말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국산 T-50 고등 훈련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의 특수비행팀 기종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7일 열린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에리스 헤리안토 국방사무차관 등 군 관계자들이 T-50을 공군 조종사 훈련과 특수비행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T-50에 대해 훈련용과 특수비행용의 2가지 도색을 요구했다”면서 “16대 가운데 절반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와 같은 특수비행용 항공기로 이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인도네시아에 T-50 1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말 완제품을 인도할 계획이다.

한-인니 친환경차 협력 MOU 체결 인니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활성화

지식경제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하따 라자사 인니 경제조정부장관은 11월 8일(목) 발리에서 개최된 한-인니정상회담에서 인니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올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인니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니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양국은 이번에 MOU를 통해 양국 간 친환경자동차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친환경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양국은 우선 인니정부가 201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압축천연가스차(CNG차) 개발, 생산 등 친환경차 개발과 전기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F/S(타당성조사), R&D, 시범사업 등을 위해 양국 관련기관 중심으로 협력이 나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수출 시장(‘11-89만대)으로 일본기업이 약 97.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약 17.7% 190억불을 차지하는 유류보조금 문제, 대도시 대기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차 개발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INDO DEFENCE 2012 엑스포 & 포럼 개최

- 삼성, 기아, LIG넥스원 등 14개 한국기업 참여
- 인도네시아 관예선 한국업체 Black Liger 최고 인기



인도 디펜스 2012가 자카르타 JIExpo에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다. 한국과 호주, 체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45개국에서 참여한 올해 엑스포는 항공 우주 및 선박과 국방장비를 망라하여 군사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국제방위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 전시회가 국방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국가들의 연구와 협력개발, 공동투자를 통해 상호조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800여 방위산업체가 홍보를 하고 있는 부스에는 각국의 국방의사결정자들, 장성들이 진지하게 상담하는 모습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한국업체는 삼성, 기아, LIG, 현대, 한화 등 17개 대기업이 참여해 함정과 정밀조준경, 특수 군장비 등을 선보였다. 전시회에 참여한 각 기업체 관계자들은 “기존 수출품에 대한 정비기술자 파견이나 새로운 상담을 통해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전시회에 참여했다”고 참여 이유를 밝히며 대부분 한국 방산업체는 동남아시아를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장비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잠수함과 T-50 고등훈련기 수출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최대 방산협력국가이며, 최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남아는 한국의 놓칠 수 없는 무기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관이 아닌 인도네시아관에 부스를 차지한 한국업체 블랙라이거(Black Liger)가 12M 하이팔론튜브보트와 6.7M 방탄튜브보트, 5.3M 고무보트 등 실물보트를 출품해 날렵한 맵시를 선보이며 많은 바이어와 관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기형 대표는 “인도네시아 현지 제작이라는 점과 다른 나라 어느 곳에도 없는 방탄튜브를 채용한 점, 빠르고 안정적인 스피드가 강점”이라며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자신감을 보였다.

안인외 북한의 연평도 무력 공격 2주기 맞아 성명서 발표



2012 11. 23.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 공격 2주기를 맞이하여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인회는 성명서를 통해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전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그와 같은 무력도발이 재발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동포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 공격 2주기를 맞으며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대한민국 연평도를 향해 1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적의 포탄에 산화하였다. 적들의 도발에 우리 장병들은 포탄이 날아오고 동료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휴가를 출발하다 자대로 복귀하는 용맹을 보여주었고, 철모끈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대응 사격하는 투철한 애국심과 정신력을 발휘하였다. 적들은 6.25동란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해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시킨 반인륜적 군사공격을 감행했음에도 한마디 사과하는 커녕,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연평도 무력 공격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그 충격과 분노를 되새기면서 인도네시아 5만 동포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한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민간인을 겨냥한 잔혹한 행위로, 동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임을 강력 규탄한다!

1.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무장공비 침투, 민간항공기 테러, 민간인 납치, 천안함 공격 등 수십 차례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북한의 3대세습과 핵개발,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침묵하면서 명명백백한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종북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단합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태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1. 적들이 무력도발을 다시 한 번 자행할 때엔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완벽한 전비태세와 전 세계 동포의 단합된 힘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2. 11. 23. 재인도네시아한인회원 일동

연평도 포격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북한이 남한의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2012 아시아청년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회장 김광현)는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통일청년 세대를 발굴하고 진정한 국민의 통일의를 실현하고자 ‘2012 아시아 청년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제로 다룬 이번 행사는 2일간(11월 9일-10일) 한국국제학교와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회의 첫날인 11월 9일에는 서남아-양주시 협의회와 자매결연식과 특강이 열렸다. 북한 및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이수석 박사(국제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체제 변화와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이끌어야 할 남북한의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미래과제들 중의 하나”라며 “장기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준비된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둘째날엔 각 지역협의회에서 참여한 차세대 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청년세대의 역할’ 등 통일을 대비 한 주제 발표와 분임토론으로 이어졌다. 통일을 위한 차세대 위원 및 해외 차세대들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펼쳐졌고 분임토론 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상명 동남아협의회 자문위원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소통 협력방안>으로 평화상황, 소강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일관되지만 다른 유연한 문화적, 교육적, 제도적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주 자문위원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효율적 그룹관리로 위원들과의 친밀감 형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청년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청년자문위원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김지선 자문위원은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뿐 아니라 한반도를 태평양,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남아 지역의 평화 및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가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여 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광현 회장은 젊은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 전환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분단국가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론통합은 물론 민주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차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새 회장에 아연수 씨 선임



회원 5천여 명이 활기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땅그랑반튼한인회가 출범 2기를 맞이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는 지난 11월 6일 임페리얼C.C.(땅그랑소재)에서 사무총회를 개최하고 무기명찬반투표 전원찬성으로 PT. Seolin의 아연수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2010년 9월에 발족된 땅그랑반튼한인회는 이세호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해마다 어버이날 잔치와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인니 한인사회의 화합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절차나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당사자 간의 다리 역할 등을 함으로써 지역 한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세호 초대회장에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아연수 회장은 “땅그랑 한인들의 안정적 현지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새롭게 출발하는 땅그랑반튼한인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삶의 의무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부족한 시간과 자금 문제는 적절한 시스템으로 극복하여 회원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취임식은 12월 19일 땅그랑반튼한인회 연말 행사 중에 가질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나도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등 경연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재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 총회

재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회장 박미례) 2012년 총회가 11월 6일 골프대회를 겸해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자고라워 골프클럽에서 열린 골프대회는 148명이 참가하여 37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대회에서 손미경 씨가 75타로 베스트그로스를 기록했으며, A조위너 위경숙, B조위너 이승아, 룡기스트 유진선, 니어리스트 투더핀 조예숙, 니어리스트 투더라인에는 김춘자 씨가 각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조예숙, 김춘자 씨는 지난 9월 전국체전에 인도네시아대표팀으로 참가하여 골프단체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실력파들이다.

이번 대회는 자칫 지루하게 느껴지기 쉬운 열대의 이국에서 여성들만의 경기를 통해 활기와 능동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최 측의 취지이며 이에 부응하여 홍보 일주일 만에 티켓이 매진되는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뜻있는 기업체와 단체, 기관장들의 지원에 큰 힘을 얻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박미례 회장은 “여러 참가자들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것에 큰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한국부인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부탁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해단식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태권도 금메달 1개를 비롯하여 은 5개, 동 9개를 획득하여 해외동포 16개국 중 종합 6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던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이 내년을 기약하며 해단식을 거행했다.

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회장 양영연)에서 마련한 선수해단식은 11월 28일 리즈칼튼 호텔에서 열렸으며, 김영선 대사와 한인회, 선수단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놀라운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임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행사 1부는 전국체전에서 큰 공헌을 한 선수 및 임원단을 격려하는 자리로 단기 입장과 성적보고에 이어 김영선 대사의 수상자 시상을 비롯해 선수 및 임원들을 위한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식으로 진행되었다.

양영연 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지원한 고문과 후원사에게 감사패를 전하면서 “성원에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2부는 화려한 축하무대로 펼쳐졌다. 군인들에게 인기가 좋아 ‘군통령’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가수 지원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수 이루, 효녀가수 현숙, 국민 트로트 가수 태진아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재인니사회의 단합된 모습과 힘의 결실을 함께 나누었다.

한인회 승은호 회장은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체육대회는 참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달을 목에 거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선수들이 거둔 메달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김영선 대사는 “인도네시아교민 사회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외교관으로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다”며 “어려운 점도 많지만 대사관, 한인회, 체육회 등 여러 한인단체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한인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새해 벽두부터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한인사회에 지혜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인니한인청년회(KIYA) 재인니한인차세대포럼 및 활성화 대외 개최

11월 17일, 재인니한인청년회(KIYA-Koreans in Indonesia Youth Association, 이하 KIYA)는 김영선 대사, 한인회, 청년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인니한인차세대포럼 및 활성화 대회’를 포시즌 호텔(자카르타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KIYA(회장 김종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청년들의 인적 네트워크 결성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발전을 꾀하며, 공익사업과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여 기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KIYA의 활성화 및 인도네시아 내 영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대회장인 이진수 씨 외 회원 35명으로 발족하여, 제2기 장운수 회장을 거쳐 현재, 제3기 김종현 회장이 역임하고 있는 한인청년회는 2008년 발족하여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청/장년(만 20세에서 45세까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결성 및 사업 노하우 공유, 청년회와의 교류를 통한 인도네시아 내 로컬 네트워크 확장, 인니특전사태권도대회 지원, 인니체육성과 체

육대회 개최, 재인니한인회 이사회 참여, 세계 한인 영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교류, 한인청년회 봉사단 발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럼은 정병후(공사참사관), 김은미(CEO Suite 대표), 조호신(Reliance Group 부사장), 강학수(Kreon 이사) 씨가 패널로 참석하여 재외동포정책 및 개인별 소개 등을 주제로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한인청년회의 참여의지를 고양시켰다.

KIYA 연혁 및 사업계획 발표로 이어진 2부에서 김영선 대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고 꿈을 이루어 나가자”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화합을 강조하였다.

신기업 한인회수석부회장은 “어디에 사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현지인들에게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자”며 한인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미니인터뷰 : 한인청년회 김종연 회장

☆ 청년회의 성공적인 발전에 있어 한인회와 다른 여러 단체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인 청년들을 위해 대사관이나 한인회 주관 행사에 청년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한인 네트워크 확충뿐만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가 및 현지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 청년들이 인니 사회에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청년회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힘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청년회 회원들은 20세에서 45세까지 한참 일을 할 시기입니다. 청년회의 여러 행사를 참여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현재 교민사회의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한인청년회의 장점, 차별성,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저희 단체는 아버지 세대가 성공적으로 닦아놓은 발판을 통해 2세, 3세 또는 청년들이 미래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한인 청년들을 위하여 한인기업에 대한 취업박람회입니다. 코트라와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들과 화상 인터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인청년회가 작년까지 별다른 활동사항이 없었는데, 향후 계획은?

대외적으로는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해외 각 지역

의 청년회와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의 주요단체와 연계 사업 모색 및 구축, 현지 청년단체와의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 강화와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전문분야 및 경영활동정보들을 공유하여 멘토링 사업과 산업 분야 또는 관심 분야별 소그룹 모임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하는 것이 저희 KIYA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활동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본 한인청년회는 한인사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스스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여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청년들이 그간의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한인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번 포럼은 재인니 한인 이민사의 선구자인 초기 세대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 가짐의 결연한 실천의지로 보인다. 보다 나은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건전한 취지는 젊은 세대를 넘어서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전체를 밝고 희망차게 한다.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한인청년회를 바라보는 한인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청년회의 왕성한 활동과 도약을 기대해 본다.





11월 28일, ‘하나은행-외환은행 2013 경제전망세미나’가 물리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미국, 유럽) 경제 전망, 아시아(중국, 인도네시아) 경제성장과 전망, 한국 경제 전망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상황과 향후 글로벌 실물 경제의 흐름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을 경청할 수 있었다. 또한 송창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내년 최저임금에 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박우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유로존 체제 붕괴위험 완화와 주요국 유동성 공급효과 등을 설명하며 세계경제가 신흥국의 내수확대 조치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정책 불확실성과 펀더멘탈 개선의 지연으로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중국은 경이적인 성장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할 것이며, BRICs 등 주요 경제권의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추락한 반면 ASEAN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며 FDI 유입과 고용시장 개선, 양호한 인구구조로 내수테마가 이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내수 증가로 6%대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Bank Danamon의 Anton Gunawan 수석경제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강세, 중산층 성장에 따른 내수소비 증가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유럽발 위기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더 빈번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내 임금 급등, 지역 격차 심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조화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윤병수 연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포플리즘 정책에 의한 임금 급상승,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4.6%(10월)의 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 요구로 반영되고 있다. 기계설비, 근로자 숙련도, 원가관리 강화, 노사화합, 사회공헌활동 증대, 경제개발 가속화 및 확대 마스터플랜 등을 고려하여 업종고도화 등 투자전략을 재검토하여야한다고 권고했다.

송창근 수석부회장은 “최근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업체별로 근로자들과 임금에 합의해 주 정부에 임금인상 유예를 신청하면 2주 내에 승인하도록 했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임금인상 유예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해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코린도장학재단 인니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지원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지난 11월 12일, 5개 인도네시아 각 대학교,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코린도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매년 1~2명의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한국의 대학교와 연결하여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으며 장학혜택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이 28명에 이르고 있다.



코린도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U.I, IPB, UNAS, UNPAD, GAJA MADA 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581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U.I, UNAS, GAJA MADA 대학교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졸업 후에 한국계 기업체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다.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우수대학생 장학금 수여

한 국내 은행권 최초의 비영리 자선공익재단으로 2005년 12월에 설립된 외환은행나눔재단은 2012년 12월 3(월) 인도네시아외환은행(법인장 조용우)에서 2012년 우수대학생 국외장학금 수여 행사를 가졌다.

금년에는 University of Indonesia, Bogor Agricultural Institute, Jakarta State University, Atmajaya Catholic University, University Padjadjaran, Academy Bahasa Asing Nasional 등 6개 대학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60명을 선발하여 총 US\$30,000를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외환은행나눔재단 국외장학금 후원사업은 외환은행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우수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2년도 총 장학금 지급액은 US\$90,000 규모이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은 먼 이국에서 전해지는 온정에 감사했으며 더욱 학업에 매진하여 인도네시아와 한국외환은행과의 우호적 관계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외환은행나눔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우수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문 「환은장학금」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환은행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인도네시아외환은행은 인니에 진출한 한인기업과 동포들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본점 수디르만 GKBIB본점과 쟈카랑, 글라빠가딩 등 2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내년 초 자카르타 서부 지역 고객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번째 출장소 개점을 앞두고 있다.





존 뿌라세띠오 한국주재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대사관에서 양국의 해군 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현 새누리당의원)에게 인도네시아 해군 최고 훈장인 빈땅 잘라세나 우따마 (Bintang Jalasena Utama)를 수여했다.

● PHOTO NEWS ●

11월 15일, 자유총연맹인도네시아지부(지부장 박동희)는 리뽀 까라와치에 위치한 SPH(Skolah Pelita Harapan) 운동장에서 제3회 교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와 육상 2종목으로 나누어 오전과 오후에 각각 개최었다. 땅어랑풋살, 땅어랑한인축구단, 자카르타한인축구단, 찌까랑한인축구단, 열린교회축구단 등이 참가했다.



헤리티지 탐방 참가자 및 자료 번역 봉사자 모집

문의 : 공동회장 이수진 0816 130 0210/ 유남실 0815 8420 8949

제5차 헤리티지 탐방

장 소 : Textile Museum과 카페, 시 간 : 12월 22일 오전 10시 --2시

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유남실 eunice8035@hotmail.com

제6차 헤리티지 탐방-수마트라 또바호수

일 시 : 2013년 1월 15일(화)~18일(금), 접 수 : 이수진 0816 1300 210 선착순 20명

헤리티지 회원 가입 안내 <개인 30만 루피아(2인), 가족회원 60만 루피아>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많은 관심과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전액 인도네시아 문화지원활동에 쓰입니다.



제13회 한인미술협회전 - 송년맞이 소품전 -

재인니한인미술협회(회장 이은수, 이하 미협)는 제13회 한인미술협회전 ‘송년맞이 소품전’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소품전이라는 주제처럼 아담하고 정겨운 작품들로 작가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이번 전시회에는 수채화, 수묵, 아크릴, 오일페인팅 등 15명의 회원들이 틈틈이 준비한 작품 35여 점이 전시되어 전시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들을 불러 모아 작품 감상과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선 대사는 “송년회 소품전은 우리 동포들이 지치고 메말라가는 마음을 달랠 기회가 될 것이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 한국적인 푸근함을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은수 회장은 “이번 작품들은 큰 작품들은 아니지만 우리들 일상에서 스치듯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과 내면의 솔직한 느낌들을 캔버스에 담아냈다”고 출품작에 대한 설명을 했다.



생생토크 “용기를 내어 도전하자!”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차세대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차세대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세미나는 여성들의 역량과 활약을 담은 이야기 ‘생생토크’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지난 11월 17일,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차세대 한인여성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성숙한 한인여성,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한국여성의 면모를 찾아내고 계발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패널과 청중이 하나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다.

제1부, ‘재 인니 차세대 한인여성의 도전, 빛과 그림자’에서는 양수려, 고주희, 백다혜, 최재희, 김민정 씨가, 제2부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에서의 대처 방법’ 시간에는 홍혜선 대사부인, 이미라 임무관, 허영순, 박현순, 김석주 씨가 패널로 초대되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여성들의 현주소를 진지하게 짚어냈다.

패널들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실패극복의 경험, 여전히 도전하는 힘찬 여성 등의 다양한 주

제로 이야기를 펼쳤고, 참가자들에게는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궁금했던 정보들,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풀어내는 자리가 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용기 내어 도전하자!”고 서로를 응원했다.

배정옥 코윈 고문은 “한국의 마지막 자산은 한국의 여인이니 오늘의 생생토크가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용기 있는 삶을 주문했다.

물류업체를 운영 중인 최재희 씨는 “슈퍼우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를 잘 분배한다면 육아, 가사, 일 모든 것을 병행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 권고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이끌어낸 이순재 코윈 회장은 “(이번 행사는) 그 전에 비해 패널들이 그리고 청중들이 많은 숙제를 주었습니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친구를 얻어 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라뮤즈가 그려 놓은 계절 이야기... LA MUSE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LaMuse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시, 음악, 예술 등을 주관하는 아홉 여신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02년 2월에 창단된 재인니한국 여성합창단이다. 이번 10주년 기념 공연은 지휘 유지영, 반주 김성아, 그리고 16명 단원들이 이루어낸 벅찬 감동의 하모니였다.

LA MUSE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라뮤즈가 그리는 계절 이야기’가 지난 11월 3일 직스나래홀에서 펼쳐졌다.

공연은 기존의 여느 음악회와는 다르게 단원들과 관객들의 합창 Hallelujah로 서막을 열어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시작되었다.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 성가 <Hallelujah>, 잔잔한 꽃들을 주제로 한 <Flower Season>, 혼성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준 <자카르타아버지양상블과 함께>, 향수를 달래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등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솔로 김지연의 청아한 목소리가 더해진 ‘첫 눈 오는 날 만나자’는 눈이 내리지 않는 이곳 자카르타에서 겨울을 선사하는 듯 영롱하고 상큼하게 청중을 매료시켰다. 마지막

양코르 곡으로 관객들과 함께 한 ‘우리들의 겨울 이야기’, ‘꽃밭에서’는 관객과 합창단이 하나 되는 벅찬 감동과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된 곡들은 자카르타에서는 거의 초연된 작품들이다.

연습실 부족 등 지난 10년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휘자의 세밀한 구성력과 단원들의 개성이 잘 조화된 성숙한 무대를 펼쳐 보인 라뮤즈는 그동안 매 공연마다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보냈다. 이번 공연수익금 역시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에 보내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공연축하 화환 대신으로 받은 쌀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사용된 미담을 전하고 있다.

단장이며 지휘자인 유지영 씨는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공연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한인사회의 화합과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카르타남성양상블과의 협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라고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한 무대를 돌아보며 말했다.

제6회 JKCC 정기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12월의 첫 날, JIKS 나래홀에서 제6회 자카르타 한인어린이합창단(JKCC)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어린이단원들은 지난 4월 새로 부임한 안영수(지휘), 조진영(반주) 선생님과 함께 7개월 동안 함께 배운 노래들과 학년별로 준비한 특별순서, 합창단원 어머니들의 축하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공연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8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으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여학생들의 단아한 첫무대(넌뛰기)로 시작해 남학생들의 힘찬 합창(연날리기),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커다란 징소리와 함께 부른 밀양아리랑으로 처음부터 관객을 사로잡았다.

첫 특별무대였던 3,4학년 댄스는 2012 최고의 히트곡인 강남스타일! 합창단의 막내들이 꾸민 귀엽고 깜찍한 첫 무대에 이어 6학년 졸업생들 중 여학생들이 준비한 원더걸스의 Like this는 바쁜 학교생활 중에서 모여 연습한 보람이 있는, 진짜 원더걸스보다 더 멋진 무대였다. 이어진 자모회원들의 무대 또한 화려한 분장과 수준급의 댄스실력으로 관객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특별순서였던 5,6학년의 태권무는 구현진 태권도 사범의 지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선’이란 곡에 절도 있는 태권도 동작을 율동에 접목시켜 자칫 무거울 수 있는 태권도의 느낌을 오히



려 신나고 힘차게 바뀌놓았다. 특히 순서 중간에 있던 송판을 격파는 처음 태권도를 접해 본 아이들도 멋진 발차기로 송판을 격파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동요메들리와 ‘함께 걸어 좋은 길’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던 밀양아리랑을 앵콜송으로 막을 내린 후, 6학년 학생들의 졸업식에서는, 송현섭 학생이 6학년 대표로 선생님과 후배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준비해 가슴 뭉클한 감동 하나를 더 선사했다.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JKCC)은, 3~6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매해 2~3월에 오디션을 통해 신입단원을 모집하며, 다양한 한-인니 문화행사와 많은 외부공연에 초대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도를 맡고 있는 안영수 씨는, “앞으로 더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해마다 발전하는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이 될 것이며, 수준 있는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면서, 교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제2기 MIT 사역자 훈련학교

MIT 사역자 훈련학교 2기 집회가 뽀짝에 있는 ‘자연으로’ 에서 수강생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다. MIT 사역 단체의 대표인 최영봉 목사는 충청도의 증평민음 교회 담임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훈련사역을 황성주 박사와 함께 맡고 있다. 또한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영봉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호주, 캄보디아, 키르키스탄, 일본 등에서도 열리는 MIT 집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신다. 이런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핵심은 은사나 방언이나 치유, 기적들에 치중하지 않고 오직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온전히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참석한 사람들이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 고 말한다.



(사)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강좌 더 나은 삶을 위한 몇 가지 방법 - 강사 최창식 하나은행장

(사)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강좌가 22회를 기록했다. 11월 10일 강좌는 최창식 하나은행장을 초청 강사로 모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진지한 탐구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참석자들은 “당신은 2년 전, 3년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과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가?” 라는 진지한 질문 앞에 맞서야 했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이라는 방향키를 줬 수 있었다.

이날 강의에서 최창식 하나은행장은 자신은 “지식을 쌓는 독서가 아니라 영감을 얻는 독서를 했다” 고 독서를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끌어들이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는” 실천사항을 일러주었다. 최 은행장은 자신의 삶을 바꾼 책을 <무지개원리>, <카네기인간관계론> 그리고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소개했다.

재인니한인색소폰동호회 '2012년 송년콘서트'

12월 2일, 재인니한인색소폰동호회(회장 강희중)가 감미로운 색소폰 선율로 2012년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2013년의 새 희망을 전하는 '2012년 송년콘서트'를 한국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소박하게 펼쳤다.

합주곡 'Gospel Treat'으로 시작된 1부 공연은, 파란색 재킷과 하얀 구두에 눈을 지그시 감고 '돌아가는 삼각지'를 연주한 김우재 회원, 이일하 지도강사의 'Silver Bell' 등 음악이 좋아 틈틈이 실력을 닦아온 회원들의 색소폰 선율이 밤의 향연을 만들어냈다.

이어진 2부 공연에서는 자카르타플루트앙상블의 특별출연이 멋진 앙상블을 이루며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또한 김창식, 이강용 회원의 '칠갑산' 연주와 김상태, 신영교 회원의 '내 고향 충청도' 등 알토 색소폰연주로 이어지며 감동의 파도를 이어나갔다.

오랜만에 음악의 선율에 젖어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는 관람객들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연주

하는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가 생각난다. 부드러운 색소폰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색소폰동호회는 연주를 통하여 한인사회에 편안함과 정서적인 안정을 선사하고, 자선공연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며 "악기 한 가지라도 연주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욱 풍성한 꽃밭 속에서 지낼 수 있다"고 강희중 회장의 말했다.

회원들의 반응 역시 "바쁜 직장생활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즐겁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연습을 했다"며 "색소폰 실력이 늘어서 좋고, 친목도 더 단단해져 좋다"고 입을 모았다.



플랜코리아, 중부발전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제 1 KOMIPO School’ 준공

국제아동후원기구 플랜코리아(대표 이상주)가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과 인도네시아 자바 섬 그로보강 지역에서 ‘제 1 KOMIPO School’을 건립했다.

이번 초등학교 준공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계속되는 인도네시아 내 지역사회 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중부발전의 초등학교 건립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며 중부발전의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과 KOICA가 연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플랜코리아 이상주 대표 및 임직원과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최성호 KOICA인도네시아 소장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 학교의 건립을 축하했다.

학교가 준공된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은 초등학교 중 약 23.5%는 심하게 파손되어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낙후된 교육환경과 낮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퇴율 증가와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



인도네시아의 재능과 개성, 한국의 스타 시스템이 합쳐져 탄생한 남성 아이돌그룹 ‘S4’가 양국에서 본격적인 인기몰이에 나섰다. S4의 소속사인 YS미디어(대표 박영수)는 12일 S4의 디지털 싱글 앨범 표제곡 ‘She is my girl’이 한국에서 발매 첫 주인 지난주 멜론 차트 해외 팝 부문 27위와 음원 차트 19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공개 1주일 만에 조회 수 40만을 넘기고 모방 동영상과 영어·독일어 자막 동영상이 등장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4인조인 S4는 지난 2~7월 YS미디어와 인도네시아 TV 인도시아르가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갤럭시 슈퍼스타 시즌 1’의 우승팀으로 한국의 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지에서 9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레인보우브릿지에이전지의 김도훈 작곡가가 만든 ‘She is my girl’로 지난달 31일 포미닛의 자카르타 콘서트 ‘볼륨 업 파티’ 무대에 올라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데뷔했다.

박영수 YS미디어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안 · 인니 압작 아이돌그룹 활동 본격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결합해 탄생한 S4는 한국의 스타시스템이 새로운 문화수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S4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4, 양국의 문화가 합쳐져 탄생한 이들의 싱글 앨범은 K-POP에 뒤지지 않는 세련됨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언어로 충분히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 지역사회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중부발전은 교실 6개와 교무실 1개, 도서관, 화장실, 식수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 기자재 공급 및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제 1 KOMIPO School의 준공으로 20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학교에 설치될 화장실관 식수시설 등을 통해 8,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에 참석한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

발전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초등학교를 건립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고 전하며 완공을 축하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올 2월 플랜코리아와 함께 같은 지역 응웡박 마을에 제 2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 2 초등학교는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



2012 마지막 케이팝 콘서트 대미를 장식한다!



2012년 인도네시아에 유난히도 많았던 K-Pop 가수들을 대표해 짐승돌 2PM이 오는 12월 8일 자카르타 안쥘, MEIS에서 두 번째 아시아 투어 ‘What time is it? 2PM in Jakarta 2012’를 통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다. 2PM은 준케이, 닉쿤, 택연, 우영, 준호, 찬성 총 6명으로 구성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지난 2008년 “박진영의 자존심”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데뷔한 이래, 발표하는 앨범마다 그들만의 화려하고 힘 있는 퍼포먼스로 주목받으며 국민 짐승돌의 위치

에 올랐다. 여성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10점 만점에 10점’ 부터 ‘Again & Again’, ‘니가 밍다’, ‘Heartbeat’, ‘Without U’, ‘I’ll be back’ 까지 연이은 대박행진을 이어갔으며, 2011년 발표한 ‘Hands up’의 큰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팬들을 2PM의 시간 속에 감히게 했다.

또한, 지난해 첫 해외 콘서트 ‘HANDS UP ASIA TOUR’에서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순회하며 16만 명 이상의 팬들을 동원하여 2PM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작년 11월 11일 자카르타에서 펼쳐진 콘서트에서는 예매 시작 1시간 만에 7,000석 매진을 기록하며 이미 인도네시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바 있다.

다시 돌아온 2PM의 두 번째 투어는 ‘짐승돌’의 성숙된 매력은 물론, 국내 최고의 실력과 라이브밴드와 함께 하여 기존 K-POP 콘서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최고의 음향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한인기업, 학교발전기금 전달

자카르타 한인 기업 대표주자인 하나은행, 서부발전, PT. DAWOO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10월 12일에는 하나은행 최창식 은행장이 5천만 루피아를, 22일에는 서부발전 김준수 소장이 4천5백 불을, 24일에는 PT. DAWOO 권오규 대표가 5천만 루피아를 각각 JKS 선중복 교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교육환경의 선진화를 목표로 조성 중인 JKS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 보완 및 확충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JKS 선중복 교장은 자카르타 교민사회 차세대 교육에 관심과 사랑으로 기꺼이 동참해준 기업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학교와 기업, 나아가 자카르타 교민사회 전체가 교육의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JKS 축구부 2012년 축구 첫 우승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특기 적성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학생들 간의 국제교류 및 한국축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는 내재된 특기를 계발하여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와 성과이다.

2012년 호주국제학교 Sports Fest의 축구, 농구, 수영 종목 중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2013년 첫 공식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이번 대회는 2012년 11월 10일과 17일 이틀간 자카르타 소재 학교(8세부터 16세까지)들이 참가하여 조별 경기를 치렀다.

JKS 축구부는 본교 중학과정 액티비티(축구반) 학생들을 주전으로 한 동아리이다. 학교의 신축공사 및 운동장 보수 때문에 연습하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 1회 2시간씩, 서로 격려하고 호흡을 맞추며 꾸준히 노력한 선수들이기에 이번 우승은 더욱 더 값진 성과이다.



유엔데이를 맞이한 자카르타국제학교

박 용 희 / 한인뉴스 학생기자

자카르타국제학교(이하 지스)는 11월 13일날 유엔데이(UN Day) 행사를 가졌다. 유엔데이는 매년 11월 둘째 주에 개최된다. 유엔데이 때 모든 수업은 12시 전에 끝난다. 그리고 한 시간 가량의 점심시간이 있고 오후에는 유엔데이 공연이 있다.

유엔데이 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간다. 몇몇 아이들은 국기와 모자 등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는 다양한 장식품도 착용한다.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한복을 입거나 지난 월드컵 때 착용한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멋진 문양이 새겨진 바틱을 입었고, 일본 학생들은 기모노를 착용했다.

백미는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에는 각국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전통 음식을 판다. 학생들은 유엔데이 때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맛 볼 수 있어 점심시간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학부모들은 불고기와 비빔밥을 팔았다. 유엔데이 때마다 한식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한식을 파는 곳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음식은 한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맛 보는 음식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유엔데이의 가장 큰 행사는 유엔데이 공연이다. 유엔데이 공연의 취지는 공연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것이다. 공연은 학생들의 참여로 구성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지스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전통노래를 합창했다. 학생들은 개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 단위로 참여한다. 이번 유엔데이 공연에는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라

틴 아메리카, 한국 클럽이 참여했다. 클럽들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를 골라 공연했다. 한국 클럽은 활기찬 난타공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군무와 노래를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 클럽은 전통 악기를 이용한 합주를 했다. 라틴아메리카 클럽과 인도 클럽은 전통춤을, 중국 클럽은 비보잉과 부채를 이용한 춤을 보여줬다. 클럽 공연 중간에는 지스 MUN(Model United Nations - 모의 유엔 활동) 학생들이 나와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한 나라를 대표하여 연설했다.

지스에서 유엔데이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지스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학교이므로 그만큼 많은 문화가 공존한다. 지스는 학생들간의 화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화합하지 못하는 다양성은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하기 때문이다. 유엔데이는 학교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사이다. 학생들은 자기 문화가 담긴 옷을 입거나 공연을 하면서 홍보하고 또 다른 학생들이 보여주는 문화를 감상하고 느끼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인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

유엔데이는 학생들에게 나와 다르면 배타적인 자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세를 길러준다. 그래서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꼭 필요한 화합의 장이다. 앞으로도 유엔데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함을 더욱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의 은총 성 마리아 대 성당

MARY' s CATHOLIC CATHEDRAL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대성당의 첨탑이 원대한 힘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라 자카르타의 하늘이 더 상쾌해 보인다. 마리아와 요셉을 상징하는 두 첨탑은 신의 은총을 기원하며 합창하는 듯하다. 두 탑의 조명은 성대하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그 멋진 밤 풍경을 자주보지 못한다.

신 고딕양식으로 건축된 대성당은 첨탑뿐만 아니라 틀까지 버팀목을 사용해 만든 아치모양이면서 끝부분이 뾰족한 석재로 된 높은 창문, 세밀한 스테인드글라스, 중앙 제단의 장대한 문양, 선교단의 석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고딕장식을 통해 화려함과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 11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성당은 1892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1899년까지 7년간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 끝에 1901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성당에서는 이 건물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Marius Hulswit를 기념한다. 그 이전 1829년에 대나무로 건축되었던 이 성당은 1890년 화재로 붕괴되어 1891년과 1892년에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했다. 대성당의 명물인 1,000개의 관이 있는 나무과이프오르간은 1991년 성당건축 시작 100주년 기념으로 네덜



란드에서 제작해서 가져온 것이다. 건축을 시작한 MGR(주교) Adami Caroli Claessens은 1847년 인도네시아에 왔으며 방카의 중국인 5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는 주임신부로 재직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짜르본(Cirebon), 보고르(Bogor), 마글랑(Magelang), 마디운(Madiun), 말랑(Malang)에 가톨릭을 전파시켰다. 후에 그는 추기경이 된다. 그는 1890년 5월에 무너진 성당의 건축에 애를 썼으나 1893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후 Kathedral의 설립을 완성한 신부는 MGR Walteru Jacobus Stall이다. 그는 1872년 서품을 받고 1875년 인도네시아로 왔다. 수마트라 Bangka에서 특히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의 정열을 쏟았다. 1893년 바따비아 주교가 되었으며 Kathedral 성당을 완성하고 교구와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선교를 위해 Kei 군도에 오래 머물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하느님이 맡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1897년 Ambon으로 가는 도중 Banda Sea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바따비아의 모든 배에 조기를 달았으며 Makasar를 거쳐 Tanjung Priok 항구를

거쳐 그의 유언대로 바따비아에 묻혔다. 군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 두 신부의 묘비는 묘비박물관에 있다.

성당 2층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는 이 교회와 관련 있는 조형물과 많은 기념물이 있다. 뒤쪽 정원에는 동굴 모양으로 꾸며 놓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 아늑하고 신비감이 감도는 마리아 상이 있다. 동굴 뒤쪽에 성물로 사용되는 작은 초 공장이 있다. 성당 옆 건물은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자카르타에 있는 성당을 관리하는 본부이기도 한다. 근처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명문학교도 있다.

110년 동안 낮은 데로 임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인도네시아 복음의 초석이 된 대성당의 내부에는 웅장하고 근엄하다. 성당의 입구에 마리아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선명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 있고 그 재단 앞에 수많은 신자들의 촛불이 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탈무드)’라는 말이 생각난다. 1,000명의 신자가 미사를 드릴 수 있으며 두 명의 주임신부와 보좌신부 네 명이 성당과 신자들을 돌보고

Jalan-jalan Jakarta



있다. 중앙 강대상 앞쪽 양옆에 성인(聖人)들의상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성인은 스페인 사람으로 인도에서도 선교활동을 했으며 무덤은 인도에 있다고 한다. 좌석 중간 왼쪽에 움푹 파진 누런 나팔처럼 보이는 것은 확성기 역할을 한다. 성당 양쪽 벽에 십자가의 길 14처가 그려져 있다. 예수가 사형을 선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십자가를 받는 장면, 이어서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도와주는 장면 등이다. 대성당답게 고해성사하는 장소도 네 곳이나 있다. 1대에서 9대까지 역대 주임신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8대, 9대, 10대 신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성당 재단 왼쪽에 현재 신부의 지위를 상징하는 추기경 마크가 있다. 앞쪽 양 옆에 성화 형식의 조형물이 있다. 요셉이 안고 있는 예수의 어릴 때 모습, 성인이 된 모습, 승천하는 장면, 마리아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교회의 바닥 설계는 십자가의 모습이며, 천장의 가장 높은 곳은 45미터(독립년을 상징)인데 나무로 되어 있으며 왕관모양이다. 성전 정면에 장미무늬로 된 창문은 마리아 혹은 사랑을 상징한다. 대성당은 설계와 시공기술이 뛰어나 장엄하고 섬세할 뿐 아니라 동쪽에 마주하고 있는 모스크(Mesjid Istiqlal)와 부근의 임마누엘 교회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수도 자카르타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갈망이 예술적으로 잘 승화된 대성당에 오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켜준 것이 신의 은총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 이번 성탄절에는 나도 착한 양이 되어 지치고 구멍 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성탄절은 사람을 사랑하는 날.

JL. CATHEDRAL No.7B

(021)351-9186, 345-7746

성당개방: 오전 6시~ 오후 9시

(사)한*인니문화연구원 222회-224회 문화탐방

일 시 : 2013년 1월 12일(토)~1월 14일(월)

수카르노-하따공항에서출발

탐방지 : 보로부두르 / 프람바난 사원군 /

올렌센따루 박물관/ 빠랑뜨리띠스 해변 외

탐 방 비 : Rp. 3백만

계좌 번호 : 164-00-0046950-4

예 금 주 : CLAUDIA YULIANI KURNIA

은 행 : Bank Mandiri KCP Tangerang
Pdk. Cabe Mutiara

접 수 : 0857 108 10495(SMS접수)

문 의 : (021) 7883 9597

jalanjalanindonesia@ymail.com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주님을 맞이하는 작은 계집종의 시 -

시 사공 경

말씀이 이루어져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이 되었네

약속의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여
정하신 여인 마리아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한 아기를 품었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합창하네

상처 입은 아픈 영혼
버려진 삶을 감싸 주시려고
스스로를 죽여 생명 주시려고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여, 작은 예수여

당신은 사랑으로 넘쳐흐르고
나는 넘치는 사랑에 겨워
환희의 눈물로 무릎을 꿇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마리아처럼
당신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하리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밤
하늘의 천사들이 알리는,
밤길을 달려 온 목동들이 외치는,
소리쳐 알리는 기쁜 소식을 듣네

당신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침내,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가슴 뜨거운 믿음의 벼들이어
온 땅이여 경배하라
온통 설렘으로 부르는 그 이름
아기 예수를 찬양하라
벼들여, 그 분의 오심을 맞이하라

내 가슴 뜨거운 시의 벼들이어
미움과 시기과 불의의 어둠을 내던지고
겸손한 사랑의 불길로 타올라라

이 성탄절에
작은 예수로 거듭 태어나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성육신을 이루어라

교만과 아집을 무너뜨리고
공의의 말씀을 받아
닫혔던 마음의 방문을 열어라

그리하여
눈부신 영광, 불꽃사랑으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라
벼들여, 믿음의 벼들이어
이렇게 기도하라

‘내 삶의 안으로 오소서
생명의 빛을 밝히소서, 아기 예수여’

빛으로
화해로
능력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밤 우리의 찬미가 하늘에 오르네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



땅그랑반튼한인의 행복했던 3년

사람이 살
며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것을 느껴 본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지난 3년 땅그랑반튼한인회 수석총무직을 맡았던 내 인생이 그랬다. 태어나서 50년 동안 교회 문밖을 나가 본 적이 없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석총무란 직책으로 사회활동의 첫 발을 디딘 곳이 땅그랑반튼한인회다.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오던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작으나마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의 애환을 읽을 수 있었기에 더없이 보람 있었고 감사하다.

한인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역사를 따지면 땅그랑반튼 지역 한인 진출 보다 훨씬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땅그랑반튼 지역은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써야 될 만큼 80년대 신발 산업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근거지를 삼은 곳이다. 땅그랑은 현재 5,000명에서 7,000명까지 추정 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많은 기업과 한인 역사의 오래된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역한인회로서는 13번째 늦둥이로 창립되었다. 초대 이세호 회장을 비롯하여 하연수 수석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총무단만 9명, 여성위원을 비롯한 부회장과 이사로 이루어진 임원 50여 명이 그야말

로 열정적으로 제1기 한인회를 이끌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회상해 보면 그간 지역별로 한인회가 많은 활동을 해왔고 각 지역별 한인회는 특색에 따라 교민들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왔다. 해외에는 많은 한인들이 나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간간히 들으면 조직과 운영이 무슨 정치집단 움직이듯 잡음 섞인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그렇기에 한인회의 조직 목적과 역할을 생각을 해보야 될 현실적 사명감 속에서 땅그랑반튼한인회의 출발은 분명 무언가 단단히 각오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 몇 년 근황에서 신규 기업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고 한인들이 팽창하고 있다. IT가 발달하고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세계를 하나의 카테고리 보는 시대적 요구도 달라졌다. 명령하고 보고하는 수직적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수평적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단체의 리더는 군림이 아닌 봉사로 조직의 구성원들과 임원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끌어가야 될 시대적 부름에서 2010년 땅그랑반튼한인회의 자생적 창립과 활동은 적절한 타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땅그랑반튼한인회는 2010년 2월 땅그랑반튼한인회가 발족되고 4월 16일 땅그랑 까라와찌 소재 임페리얼 골프 클럽하우스에서 가수 노고지리를 초청하여 교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민의 밤 행사를 겸한 창립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교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타 지역 한인회의 귀감으로 출발했다. 총무단과 임원단 모든 구성원들이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으로 여성의 날 행사, 현지 불우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 현지인 수낫행사(성인식), 2011년 진시몬 초청 교민 송년의 밤 행사, 어버이날 효도잔치, 족자 머라피화산 이재민 성금

전달 등 작은 나눔의 꿈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한인들이 마음의 작은 나눔을 대변함으로써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던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견어내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현지인에게 한인의 이미지 재고를 시키는 장을 열어갔다.

한인회는 한인사회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는 본래 목적이다. 수석총무직을 감당하면서 교민들이 갑작스런 흉사를 당할 때마다 많은 애로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정된 길사야 준비되고 치르는 일들이라서 문제없지만 졸지에 당하는 사망사고라든지 천재가 있을 때 한인회라는 조직이 있어 어렵게 살아가는 한인사회의 고충을 전해 듣고 도우미로서 함께 감내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때로 민간단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대사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에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죽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던 어떤 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슬픔을 이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될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인회가 나서서 대사관에 연락하여 사망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현지 관공서 행정절차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재외국민선거 예를 들어도 한인회를 통한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 신고 접수라든지 한인행사를 통한 홍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0년 한인회 주관 월드컵 공동 응원전은 한인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해 준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된다. 그런 관점에서 땅그랑반튼한인회는 뜻과 색깔이 맞아 모였던 서클도 아니었기에 임원 모두가 한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면서 불편했던 점을 찾아 개선하고 교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 내는데 고심한 흔적이 있는 이벤트 행사와 운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한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투자가 늘어나고 한인사회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합보다 대립의 각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서 한인회는 행정기관과 교민들의 중간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 재외한인사회의 사회적 여건은 물론 문화와 정서가 다른 현지인의 코드까지 읽어내야 하는 이중고를 한인들은 극복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의 이정표를 한인회가 세워한다. 문화 행사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정보교환이 원활해진다면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역할이 충분히 이행되리라 생각한다. 자평해 본다면 땅그랑반튼한인회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수렴하며 창의적 행사로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신앙을 통해 가졌던 이웃사랑을 이름만 바꾸어 교민 사랑이라 생각으로 감당해 왔다. 하지만 무지와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최선의 결과지만 낙점이 많았고 부족했던 점들은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 잘해보려고 해도 아쉬운 것이 세상사인가 보다 모든 사회의 섬김이들이 일을 하고 나면 아쉽고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가보다. 지난 3년 임기 동안 물심양면 함께 했던 임원단들의 수고와 교민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 이런 마음이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땅그랑반튼한인회 수고한 모든 임원들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조심스럽게 피력해보면서 제2기 땅그랑반튼한인회가 더욱 한인사회로 다가가기를 기원드린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인니한인사회가 글로벌시대의 비전에 걸맞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글 : 이태복(땅그랑반튼한인회 수석총무)

속담으로 재미있게! BAHASA INDONESIA

시간이라는 것, 날짜라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 아닌가 하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 경계가 필요한지 알겠더군요. 한없이 앞만 보고 갈수도 없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때로 뒤돌아보고 지나온 길을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12월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Selamat tinggal 2012 & Selamat datang 2013!

박정자 / 한인뉴스 편집장

1.

Di mana ada kemauan, di situ ada jalan.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과 ‘길’은 쌍둥이 형제이거나 아예 한 몸인 영혼과 육신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단어의 뜻과 예문>

di : (장소를 나타내는) ~에

<전치사> ke ~로부터, dari ~에서, pada
⑤kepada ~에게

mana : ① 어디로, 어디에(서)/ Anak-anak itu pergi ke mana?(저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② (=yang mana) 어느 것, 어느 사람/ Yang mana lebih enak?(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ada : 있다

- ada artinya 의미가 있는
- ada kesempatan 기회가 있는
- ada waktu 틈(이) 나다
- lega ada-ada aja 허풍을 떨다, 이야기를 가

공하다/ Saya tidak percaya sebab dia suka mengada-ada. (그는 허풍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kemauan : 원함, 소원, 의향; ⑤keinginan, kehendak, hasrat
kemauan keras 불굴, 완강, 집요함

situ : ① 저기, 저곳(장소, 위치) /di situ(저기에, 저곳에), ke situ(저기로, 저곳으로)

jalan : ① 길, 작은 길, 골목길, 보도; ⑤gang, lorong

② 거리, 도로, ~로, ~가, 찾길, 차도/ Kantornya ada di jalan Sudirman.(그의 사무실은 수디르만가에 있다)

③ 방법, 수단, 방침, 방식, 양식; ⑤cara, metode/ dengan jalan(~에 의하여, ~한 방법으로)

④ 진행, 추이, 진로/ Jalannya terlambat.(일이 늦어진다)

2.

Bagaimana ditanam, begitulah dituai.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니 타고난 태생은 버릴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같은 뜻으로 ‘될 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론이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람은 백 번 천 번 변한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낙인찍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단어의 뜻과 예문>

bagaimana : 어떻게/ Bagaimana kabarmu?(어떻게 지내십니까?)

(di)tanam : 재배하다, 심다, 뿌리다 /tanaman (식물), di=수동형(단어에 붙여 쓴다)

begitulah : 그런, 이런 / Begitulah seperti yang saya katakan kemarin.(내가 어제 한 말이 그런 거였어)

(di)tuai : ① 현금, 현찰; ⑤kontan/membayaran tunai.(현금을 지불하다)

② 지불 즉시 인도받다.

3.

Mati-mati mandi, biar basah. 전력을 다하여, 땀투성이가 되도록.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친구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한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을 잘 해서가 아니라,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일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것. 그리고 그때부터 미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단어의 뜻과 예문>

mati-mati : ① 죽은 채 하다, 죽은 듯이 가장하다; ⑤pura-pura mati/ Dia tidak mati, hanya mati-matian saja.(그는 죽지 않았고, 죽은 채 할 뿐이다.)

② 애써, 힘써, 전력을 다하여; ⑤dengan bersungguh-sungguh, membanting tulang, dengan sekuat tenaga/ Laki-laki itu berkerja mati-matian.(그 남자는 죽도록 일했다.)

mandi : ① 목욕하다; ⑤membersihkan diri/ Dia mandi pagi-pagi benar.(그는 이른 아침에 목욕을 했다)

② 잔뜩 바르다, ~투성이가 되다, (돈 따위를) 많이 얻다 (뒤집어쓰다); ⑤bersimbah, bersiram (dengan) mendapat banyak (uang)/ Dia bekerja mandi keringat.(그는 땀에 흠뻑 젖도록 일을 했다), Benar-banar pada waktu itu kita mandi uang.(그 당시 우리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다)

biar : ① (=biarlah) 괜찮다, 허락하다/ Biar saya pergi sekarang.(지금 가게 해주세요), Biar dia menangis, itu tidak apa-apa.(그를 울도록 내버려둬라, 괜찮다)

② (=biarnya) ~하도록; ⑤supaya/ Jemurlah dulu biar kering.(마르도록 햇볕을 쬌여라), Beri makan banyak biar lekas besar.(빨리 자라도록 밥을 많이 줘라)

③ (=biarpun) 비록 ~일지라도, ~이기는하지만, ~할망정/ Biar kecil anak itu berani.(그 아이는 키는 작아도 용감하다)

④ (~하는 편이 더) 나은; ⑤lebih baik/ Biar mati dari pada kalah.(지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낫다)

⑤ (=biar~biar~) 하든지 혹은 ~하든지; ⑤baik~maupun / Biar mahal, biar murah belilah.(비싸든지 싸든지 사거라)

basah : ① 젖은/ tangannya basah.(손이 젖었다)

② 축축한, 습기가 있는; ⑤lembab/ Hawanya basah.(날씨가 습하다)

③ 현행범인, ~현장에서/ Pencuri itu tertangkap basah.(그 도둑은 현장에서 잡혔다)



11월의 단상

서미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밀린 원고 정리로 까만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는다. 새날이 어스름한 새벽안개의 군무로 인왕산 중턱을 휘감고 있다. 배란다 창문을 여니 싸한 찬 바람이 안겨든다.

초겨울 인왕산의 아름다움이 내곁에 있다. 황홀하다. 어젯밤의 지친 시간은 무구한 자연 속으로 흡입되고 빛나는 새 시간이 열리는 기분이다.

간밤에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렸다.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창틀이 휘파람 소리를 내듯 꿈틀거렸다. 아마 거리에는 떨어진 은행잎이비에 젖어 흩날리고 있을 것이다. 밤새 거친 빗살에 숨을 죽이고 있던 모든 자연들이 일제히 제 기색을 찾는다. 저 멀리 산중턱에서 서서히 햇살이 비추고 모든 사물이 생기를 찾기 시작하는 시각,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밝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짧은 순간을 음미하며 나는 어제의 고단함을 벗고 잠시 평온함에 잠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없어진 탓일까, 돌아보면 나는 늘 한결을 물리서서 세상을 관망해 오듯

살아온 것 같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점점 더 매사에 치열하게 도전하기 보다는 체념하고 안도하기를 더 좋아하는 어찌면 게을러진 탓이기도 하다. 소심한 성격이다보니 그런 삶의 태도는 은연중 나의 기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화창한 날보다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을 더 좋아하고 음악도 장조의 쾌활함보다는 애조 띤 구슬픈 단음계 가락을, 화려한 원색보다는 채도 낮은 중간색 색조를, 그리고 토요일 오후 보다는 금요일 저녁을 좋아하는 말하자면 적극적 참여보다는 방관자적 안일을 즐기는 편이다. 여명(黎明)을 마다하고 굳이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산책을 더 열심히 즐기는 것도 이 같은 나의 성향 때문이 아닌가 싶다. 노을이 스러져간 저녁 빛은 체념 속에 드리워진 화해와 포용, 그리고 다음날에 대한 어렴풋한 기대가 담긴 부드러움으로 포근히 나를 감싸준다.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며 떠나려는 11월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1월은 하루를 마감하는 막 어둠이 드리우기 전의 저녁 빛과 닮아있다. 가을이라기엔 너무 늦고 겨울이라기엔 다소 이른,



가을과 겨울이 함께 몸을 섞는 달이다. 욕망의 굴레를 막 벗어 던지고 난 후의 홀가분함이라고나 할까. 가을날, 한때 화려했던 색의 잔치도 끝내고 떨어뜨릴 것, 버릴 것, 다 털어버리고 빈 몸으로 선 나무들의 모습, 그래서 11월의 바람 끝에는 마지막 잎새의 여운이 한자락 묻어 있는 것 같다. 마른 잎의 냄새를 닦아서일까, 커피 향이 유난히 좋아지는 것도 이때쯤이다. 낙엽이 두텁게 깔린 아파트 공원에 앉아 별빛 같은 불빛들을 헤아려보며 뜨거운 자판기커피 한 잔에 절없는 낭만을 꿈꾸어 보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다.

11월은 가난하고 쓸쓸한 달이다. 풍경(風景)도, 소리도, 빛깔도 여위어 바람마저 적막해진다. 어쨌든 많은 이들이 느끼는 11월은 오히려 여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넉넉하다. “빈들의 맑은 머리와/단식의 깨끗한 속으로/... 외롭지 않게 차를 마신다” 던 김현승 시인의 시구처럼, 마음이 가난하다면 더 맑아질 수 있고, 쓸쓸하기에 도리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달이다. 그 때문일까. 문학의 달이기도 한 11월은 산문보다는 시가 한결 맛이 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절제된 언어, 응축된 사유, 행간의 여백이, 군더더기를 다 털어 버리고 가뿐해진 11월의 모습을 닮았다고나 할까. 다가오는 겨울의 느낌은 무겁다. 오래된 침묵처럼 지루하고, 새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홀가분할 수가 없다. 소생을 준비하는 내밀한 움직임으로 은근히 부산하기까지 하다. 겨울을 일컬어 정중동(靜中動)의 계절이라 함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11월의 느낌은 가볍고 신선하다. 방금 비운 그릇에 남아있는 온기처럼 지난 것에 대한 미련이 사뭇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념의 편안함이 있으며 충만을 꿈꿀 수 있어 훨씬 자유롭다. 하지만 이런 여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연말이라는 회오리를 등에 업은 12월이 이내 밀려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의 12월은 대선을 치루는 달이라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분주한 움직임이다. 그렇게 부하뇌동의 소란함과 초조함 속에서 12월은 후회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

이다. 모든 사람이 금요일 밤을 좋아하듯 한 해의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의 시작준비를 11월부터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런 까닭이 있음이다.

남은 12월, 한 달의 의미는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날들을 계획할 수 있는 차분함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11월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작은 설렘이 있는 달, 운이 좋으면 첫눈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에 오래 산 까닭에 아직도 첫눈을 떠올리면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폭설이 아니라도 좋다. 대개는 무서리처럼 살포시 대지를 덮고 상고대처럼 가볍게 빈 가지를 채우는, 떠나는 가을에 대한 겨울의 예우와도 같은 차분하면서도 다소곳한 그런 눈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내 수첩의 11월의 칸에는 고국의 첫눈소식이 올라와 있곤 했다. 이 나이에도 ‘첫’이라는 글자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유일한 것은 아마도 첫눈’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 와서 체류 중인 올해는 특히 이런 나의 기다림을 아는지 떠나는 11월의 모습이 미안함에 젖어 있다. 12월에 내리는 첫눈은 11월의 눈만큼 내게 신선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저 겨울눈에 불과할뿐이다. 때로는 폭설이 되어 일상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첫눈이 없으면 어떠랴. 추적추적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 마른 가지 검게 물들고 그 가지 사이로 잿빛하늘과 둥근 까치집이 걸리는 11월의 풍경, 웬지 모를 아련함, 그 색채의 빈곤함마저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신 아웃소싱(Outsourcing)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아웃소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인력공급업사업자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KEP.101/MEN/VI/2004호와 아웃소싱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KEP.220/MEN/X/2004호를 폐기하고, 2012년 11월 19일 일부 생산공정 타회사에게 도급 조건에 관한 노동이주부장관령 2012년 제19호를 공포했다.

신 아웃소싱법은 구법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으며,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려는 회사의 업종 협회에서 해당 제품의 전체 생산공정을 확정하고,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려는 회사는 업종 협회에서 확정한 공정도를 첨부하여 노동국에 등록하고, 노동국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아웃소싱 인력을 쓸 수 있다. 현재 아웃소싱법과 다르게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년 이내에(2013년 11월 18일까지) 신 아웃소싱법에 맞게 조정하도록 1년의 조정기간을 주고 있다.

1. 사용자가 아웃소싱을 선호하는 이유

- 1.1. 노무 관리가 용이하다.
- 1.2. 인건비 부담이 적다.

- 1.3. 생산성이 더 높다.

2. 근로자가 아웃소싱을 배척하는 이유

2.1.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대 및 교통, 년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 장기근무 기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리하다.

2.2.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에서 되도록 젊은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나이가 20대 후반에 이르면 취직이 쉽지가 않아 30세 전에 퇴출당하는 상황이다.

3. 아웃소싱 근거법규

- 3.1. 인도네시아 민법 제1604조 · 제1616조
- 3.2.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근로기준법) 제3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 3.3. 일부 생산공정 타회사에게 도급 조건에 관한 노동이주부장관령 2012년 제19호
 - * 인력공급업사업자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KEP.101/MEN/VI/2004호(실효)
 - * 아웃소싱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KEP.220/MEN/X/2004 호(실효)

4. 근로기준법의 아웃소싱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

- 4.1. 근로기준법의 아웃소싱 조항에 대하여 2003년 합헌판결이 내려졌다.
- 4.2. 2011년 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 그러나 아웃소싱 자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3. 위헌 소청의 기준으로 제시한 헌법의 조항은 다시 위헌 소청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노동법의 아웃소싱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5. 아웃소싱의 종류

- 5.1. 작업도급계약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PPP)
- 5.2. 인력공급계약
(Penyediaan Jasa Pekerja/Buruh/PJPB)

6. 작업도급 계약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

- 6.1. 경영이나 실무에서 회사의 주 생산활동과 분리된 작업
- 6.2. 도급주 회사의 직접 혹은 간접 지시로 시행하는 작업
- 6.3. 도급을 주는 공정이 해당 업종의 적법한 협회에서 정한 생산공정도 상 주생산공정이 아닌 보조 공정.
- 6.4. 주 생산공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작업
- 6.5. 해당 업종의 협회는 전체 작업 공정도를 주 작업과 보조 작업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결정한다.

- 6.6. 보조 공정에 대하여 작업도급계약을 주기 원하는 회사는 협회의 생산공도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30일 전에 관할 노동국에 보고해야한다.
- 6.7. 노동국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조 공정 작업 도급 등록증을 발급한다.
- 6.8. 노동국의 등록증없이 도급을 금한다.
- 6.9. 노동국의 등록증없이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하청 회사 간의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근로자와 도급을 준 회사 간의 고용계약으로 바뀐다.
- 6.10. 작업도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에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6.10.1. 양측의 권리와 의무
 - 6.10.2.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 및 근로 조건 보장
 - 6.10.3.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보유
- 6.11. 작업도급계약서 등록증 발급 전에 도급회사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도급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이 도급을 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 6.12. 작업도급을 맡는 회사의 조건
 - 6.11.1. 법인 자격증 보유



- 6.11.2. 회사등록증 보유
- 6.11.3. 사업허가서 보유
- 6.11.4. 노동국 발급 인력보고 등록증 보유

7. 인력공급 계약 허용 공정/분야

7.1. 회사의 보조 기능 혹은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작업은 인력공급 업체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인력공급회사에게 작업을 맡길 수 있다.

7.2. 인력공급계약을 허용하는 보조 기능

- 청소 작업 (Cleaning Service)
- 음식 공급 (Catering)
- 경비 (Security)
- 광업 및 석유 분야 용역 (Mining Service)
- 근로자 출퇴근 수송 (Transportation)

8. 인력공급계약

(Perjanjian Penyediaan Jasa Pekerja/Buruh)

- 8.1. 인력공급계약은 재하청을 금한다.
- 8.2. 인력공급계약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8.2.1. 작업의 종류
 - 8.2.3. 계속되는 동일 작업에 인력공급업체 교체

기 있는 경우에 전 인력공급업체의 인력을 신 인력공급업체가 인수한다는 내용

- 8.2.4.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은 기한부 고용 계약 혹은 무기한 고용계약 명시
- 8.2.5. 인력공급계약서 노동국 등록 의무
- 8.2.6. 최장 7 근무일 내 등록증 발급
- 8.2.7. 인력공급 계약서 시/군 노동국에 등록하지 않고 인력공급 시 인력공급회사의 사업허가서를 취소한다.

9. 인력공급회사의 조건

- 9.1. 법인 자격
- 9.2. 회사등록증 보유
- 9.3. 사업허가서 보유
- 9.4. 인력보고서 보유
- 9.5. 활동허가서 보유
- 9.6. 사무실 및 고정 주소 보유
- 9.7. 납세의무자등록증 보유

10. 경과 조처

- 10.1. 아웃소싱을 사용하는 회사, 도급을 받은 회사 혹은 인력공급업체는 2012년 11월 19일을 기준하여 최장 12개월 이내에 신 아웃소싱에 관한 신 노동부장관령에 맞게 아웃소싱을 조정해야 한다.



10.2. 상기 “10.1.항” 대로 조정하지 않은 도급을 받은 회사 혹은 인력공급업체는 고용계약에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책임진다.

11. 아웃소싱의 현황

11.1. 거의 전 산업분야에 아웃소싱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계 제조업체가 밀집해있는 Bekasi군의 경우, 관할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아웃소싱과 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이며, 이 중에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노동법상으로 아웃소싱 혹은 기한부 고용계약을 금하는 작업 혹은 업종에 고용되어 있다(* Bekasi 노동국).

11.2. 노동당국의 단속 현황

아웃소싱회사를 통해서 공급받은 인력을 생산공정에 이용하고 있는 회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웃소싱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시정명령이 강제 구속력이 없다.

11.3. 노동법원을 통한 해결

불법 아웃소싱에 대하여 노동법원에 소송 청구 가능 그러나 소송비 등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약한 근로자가 소송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다.

11.4. 근로자들의 불법 단체행동 : Sweeping, 데모

* 사용자의 불법 아웃소싱 : 근로자의 불법 단체 행동

* 2014년 대통령 선거

12. 아웃소싱 문제 해결 대책

12.1. 문제의 원인

12.1.1. 노동법에서 아웃소싱을 금하고 있는 생산공정에 근로자 투입

12.1.2. 생산공정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아웃소싱제도 폐기 요구

12.2. 원인 제거

12.2.1.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회사는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단계적인 시행 노력 필요. “예” 아웃소싱 몇 %, 기한부 고용계약 몇 %, 무기한부 고용계약 몇 %, 일용직 몇 % 식 접근

12.3. 자체 노무관리 능력 보유

12.4.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필(*Musyawarah)

12.5. 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상 아웃소싱 허용범위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

산호천국 WAKATOBI 가는 길

글 : 이 재 원

릴리(Lilly)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나의 10년 지기이다. 인도네시아해양수산부 수산해양인력 관련부서에서 중견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늦은 나이에 시작한 나의 대학원과정 클래스메이트이다. 전화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자카르타수산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양생명공학(Marine Biotechnology) 관련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리는데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도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에서 교수 두 분이 참여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같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만 대답해두고, 행사스케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행사는 자카르타 수산대학 본부에서 9월 15일 세미나가 있고 그 이후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 항공편으로 남동술라웨시 주에 있는 와카또비 해상국립공원에서 2박 3일간 민속 및 해양탐방에 참여하도록 짜여 있었다.

첫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학자들과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모인 해양생명공학 분야 학자들이 모여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였다. 특히 부경대학교 홍용기 교수님은 해조류의 가공 및 식용에 관하여 발표하였는데, 인도네시아인이 잘 먹지 않는 해조류에 많이 함유된 요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 김현우 교수님은 해양생물에 함유된 독소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여 참석한 여러 학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 중에 자카르타 수산대학에 연구지도 교수로 재직 중인 홍성운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 해양생명공학 분야는 연구가 활발하고, 특히 키토산 관련 연구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귀뜸해 주신다. 논문발표와 토의를 마친 후 탐방에 참여할 일행 20명은 대학에서 준비한 버스로 공항으로 이동해 라이온항 공편에 몸을 싣고 경유지 마까사르 시로 떠났다.

3시간여 비행 후 저녁불빛이 깔린 술라웨시 섬이 눈에 들어온다. 마까사르가 위치한 이 섬은 인도네시아에서 4번째 큰 섬으로(세계 11번째), 지도에서 보면 순다열도 상에 K자로 보이는 큰 섬이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보네수산고등학교 선생님의

안내로 해안가에 있는 해산물요리전문점에서 미리 차려놓은 싱싱하고 푸짐한 요리를 마음껏 즐겼다. 식사 중 마까사르에는 로사리 해변이 아름다우니 꼭 찾아보라는 얘기를 귀에 담고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 멋진 백사장을 기대하며 해변으로 가니 모래는 보이지 않고 포장된 광장이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 찾아왔나 해서 돌아보니 한쪽에 로사리라고 쓰인 큰 구조물이 서 있고, 마침 일요일 아침이어서인지 수많은 인파가 아침운동을 하고 있다. 해변이라면 모래가 펼쳐진 광경만 연상하던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려 찬찬히 보니 멀리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와, 저녁노을이 멋지겠다는 상상을 해본다.

마까사르를 출발한 와카또비행 비행기는 동쪽으로 기수를 돌려 보네만을 가로질러간다. 익스프레스 에어에서 운항하는 32인승 소형 프로펠러기인데 마까사르에서 와카또비까지 1일1회 왕복 운항한다고 한다. 와카또비라는 명칭은 술라웨시섬 동남부 꼬트머리에 대장장이(인도네시아어 TUKANG BESI)군도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4개 섬(WANGIWANGI, KALEDUPA, TOMIA, BINONGKO)의 앞 철자 2개씩을 따서 만든 지명이다. 1996년에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약 830, 인구는 약 10만 명이다. 주민은 바조족이 주류를 이루고, 주로 바닷가에 살며 주업은 어업이다. 섬은 야트막한 야산을 이루고 있고, 제일 높은 곳이 해발 270m 정도이다. 바다에 비해 땅은 비옥하지 못해 나무나 다른 식물들의 생장이 부실하다. 우리는 왕이왕이섬 북쪽 해안에 위치한 빠뚜노 리조트 와카또비에 여장을 풀었다. 리조트는 아름다운 백사장을 따라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샤워실 바닥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은 목재로 지어져 투박하지만 환경 친화적이다. 리조트에서 점심식사 후 오늘 탐방할 호가섬으로 가기위해 왕이왕이섬 서해안에 있는 완찌로 출발했다. 가는 길에 마을에는 술라웨시 전통가옥인 누마루 2층집이 현대식 가옥 중간 중간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배를 타기 위해 부



돛가에 내려서니 해안가에는 B바쥬족이 사는 해상가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일행은 이색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하다.

수상가옥 촌 부두에 배를 대고 마을에 들어섰다. 앞은 산호초지역에 축대를 쌓고 집을 지어 수 백여 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전기, 수도 같은 문명의 이기 없이 전통방식의 삶 그대로이다. 동네중간의 바다에서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헤엄을 치며 놀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우리는 동네 깊숙이 가지 않고 입구 쪽만 둘러보고 서둘러 배로 돌아 왔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호가섬 선착장에 배를 대고 우리는 먼저 지방정부에서 개설한 해양생물 연구실과 영국 Wallace 연구재단과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소박한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월레스 재단에서는 매년 영국의 대학생들을 이곳에 보내 약 1개월간 해양생물연구조사 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생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부러움을 느낀다.

Alfred Russel Wallace(1823~1913)는 탐험가, 수집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초기 페미니스트, 작가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한 영국인이다. 1854년부터 1862년까지 8년간 인도네시아 군도에 머물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을 탐험하였으며, 그 거리가 14,000마일에 달한다. 아마존유역을 포함한 그간의 현장연구의 성과로 생물의 진화를 발견하여, 말루꾸제도의 작은섬 길로로에서 홀로 논문 초안을 작성하여 런던의 친구에게 보낸 것을 다윈이 읽어보고 자기가 연구한 진화론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데 놀라, 한때 종의 기원의 집필을 미룬 적이 있다고 한다. 생물의 진화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월레스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와카또비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산호 서식지로서 코랄 트라이앵글(산호 삼각지역)의 중심부이다. 아직 문명의 때가 덜 묻은 자연 그대로의 해양환경이 남아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해안이 산호초로 뒤덮여 있으며 그 길이가 600km



에 이른다. 수많은 라군(석호), 환초, 보초 등 25가지 산호초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칼레두빠 산호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넓고 긴 산호초지대이다. 이곳 와카또비에는 15속(Family)에 속한 396종의 산호가 서식하고, 3종의 거북이, 590여종의 어류가 살고 있으며,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회유하는 고래의 이동경로 상에 있어 고래도 가끔 볼 수 있다. 세계야생동물재단(WWF)에서 산호, 맹그로브, 해조류, 어류부화, 바다포유동물, 조류 이동경로, 거북이 산란, 연안 어류 서식 등 8개 부문 자연생태 특별연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와카또비군 당국에서 세계 해양생태연구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탐방을 끝낸 우리는 계획보다 늦은 시각에 호가섬을 출항하여 귀로에 올랐다. 모두들 좀 전에 물속에서 받은 감흥으로 다소 흥분하여 탐방에 대하여 왁자지껄 이야기꽃이 끝이 없다. 한바다 중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거의 없는 이곳 하늘에서는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고향을 떠난 이후에 처음 보는 광경이다. 남십자성, 카시오페아자리, 오리온자리, 무슨 별 무슨 별 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무엇을 찾아낸 소년처럼...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져,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과 위대함을 잊고, 우리 인간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탐방을 계기로 자연에 감사하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또, 옛 전통을 이어오며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1	한인회 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2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신 기 업	PT. HANINDO EXPRESS UTAMA	2012	10,000
3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2	10,000
4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송 창 근	KMK GROUP	2012	9,980
5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2	5,000
6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CAMTEX	2012	5,000
7	한인회 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2	5,000
8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2	5,000
9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ROYAL SUMATRA	2012	5,000
10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INWHA INDONESIA	2012	5,000
11	한인회 부회장 겸 감사	조 용 우	외한은행	2012	5,000
12	한인회 부회장 겸 감사	최 상 학	우리은행	2012	5,000
13	상공회의소 부회장	곽 상 섭	PT. BOSAENG JAYA	2012	3,000
14	상공회의소 부회장	권 희 정	PT. SAMICK INDONESIA	2012	3,000
15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두 련	PT. MIWON	2012	3,000
16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송 정	UNICON INDO MESIN	2012	2,995
17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우 진	PT. SAMINDO ELECTRONICS	2012	3,000
18	상공회의소 부회장	박 병 용	PT. PATRA SK	2012	3,000
19	상공회의소 부회장	배 형 석	PT. NANTOY RESOURCES	11/12	6,000
20	상공회의소 부회장	손 용	PT. CJ INDONESIA	2012	3,000
21	상공회의소 부회장	안 광 진	PT. ERNST&YOUNG INDONESIA	2012	3,000
22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세 호	DUMI GLOBAL	2012	3,000
23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완 주	PAN BROTHERS TBK	2012	3,000
24	상공회의소 부회장	장 윤 수	PT. HANSARAM SAKTI	2012	3,000
25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 병 우	ANEKA PANEL INDONESIA	2012	3,000
26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김 욱 찬	GARUDA TWIN JAYA	2012	2,000
27	상공회의소 사무차장	이 주 한	ROYAL SUMATRA	11/12	2,000
28	자문 위원	김 영 만	KIPCO CO. LTD	2012	1,000
29	자문 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2	1,000
30	자문 위원	박 현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2	1,000
31	자문 위원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11/12	2,000
32	자문 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2	1,000
33	자문 위원	이 진 호	PT. JINYOUNG	2012	1,000
34	자문 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2	1,000
35	이 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2	1,000
36	이 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2012	1,000
37	이 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2	1,000
38	이 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2	1,000
39	이 사	김 경 국	NES	2012	1,000
40	이 사	김 광 현	ASOKA	2012	1,000
41	이 사	김 달 수	KIDECO JAYA AGUNG	10~12	3,000
42	이 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2	1,000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43	이 사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2	1,000
44	이 사	김 상 태	SMS GROUP	2012	1,000
45	이 사	김 성 국	PT. PERTA SAMTAN GAS	2012	1,000
46	이 사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2	1,000
47	이 사	김 원 관	PT. GF INDONESIA	2012	980
48	이 사	김 종 헌	PT. KOIN BUMI	2012	1,000
49	이 사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2	1,000
50	이 사	김 혁 중	STX PAN OCEAN	2011	1,000
51	이 사	김 현 재	TOUR 153	11/12	2,000
52	이 사	남 상 달	PT. PARKLAND INDONESIA	2012	1,000
53	이 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2	1,000
54	이 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2	1,000
55	이 사	박 영 수	PT. BENUA ASIA VISION	10~12	3,000
56	이 사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2012	1,000
57	이 사	석 웅 치	PT. DAYUP INDO	2012	1,000
58	이 사	송 판 원	PT. KORYEPOLIMER	2012	1,000
59	이 사	신 유 희	PT. BINTANG 2 MACHINE JAYA	2011	1,000
60	이 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2	1,000
61	이 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2	1,000
62	이 사	안 홍 제	PT. KOLON INA	2012	1,000
63	이 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2	1,000
64	이 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2	1,000
65	이 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2	1,000
66	이 사	이 상 일	PT. U I B	2012	1,000
67	이 사	이 석 태	PT. U F U	2012	1,000
68	이 사	이 승 민	Y S M & PARTNERS	2012	1,000
69	이 사	이 종 역	K A L	2012	1,000
70	이 사	이 종 환	PT. BLESSINDO BANGUN SEJATERAH	2011	1,000
71	이 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2	1,000
72	이 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2012	1,000
73	이 사	장 주 현	INKO PRIMA UTAMA JAYA	2012	1,000
74	이 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2	1,000
75	이 사	정 주 성	PT. DEASUNG HI-TECH	2012	1,000
76	이 사	조 윤 행	PT. WIKASA	2011	1,000
77	이 사	조 호 신	SONERGY	2012	1,000
78	이 사	지 동 주	INTEC MAS ENGINEERING	11/12	2,000
79	이 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INONESIA	2012	1,000
80	이 사	최 광 수	PT. BIG STAR	2012	1,000
81	이 사	하 연 수	PT. SEOLIN NIAGATAMA	2012	1,000
82	이 사	현 정 규	MEKAR SAMMI JAYA	2012	1,000
83	이 사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2012	1,000
84	이 사	홍 종 서	PT. DONGEN CHEMICAL	2012	1,000
T O T A L				199,955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이용안내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을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1-3951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입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誠과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향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무항생제, 무화학약품, 순수곡물사료
닭을 행복하게 하는 양계법
최고의 닭고기 CharmChick

Charm
CHICK

Nature's Choice

같이보여도 속부터 겉까지 다른 Quality
참치는 참닭, 진짜닭입니다

Sucofindo의 무대장군, 무살모래라 인증
인니 농축산부의 무항생제 인증
자카르타 주정부의 1등급 품질인증

판매처 무궁화, K-마트, 뉴서울슈퍼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카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카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뽕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보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짜까랑)	8983	6047
아리랑(짜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짜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짜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둥)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힛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짜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또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짜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	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프라임투어 (한국어)	0857	1009	3479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또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JAKARTA BIZ DAILY
 Petra Jasa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I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kt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 143 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짜)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회장 한상재)0811188612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5 9717 450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아시아 진주가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품질과 정품들을 최저가로 공급하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감사 특별 할인행사 : 2012년 12월 1일 ~ 2013년 1월31일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 · 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알리안탄 Passo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